

# - 새 정부에 바라는 인문 2030 정책제안 -

<<인문 metaverse initiative 2030>>

일시 : 2022. 4. 18(월) 오후 2시3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한국인문학총연합회·한국철학회 후원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 -새 정부에 바라는 인문 2030 정책제안-

## <<인문 metaverse initiative 2030>>

주최 : 한국인문학총연합회 · 한국철학회, 후원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일시 : 2022년 4월 18일(월) 오후 2시30분,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대회의실

일 정			
제 1 부	2:30-2:45	사 회 : 최윤선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사무총장 개회사 : 이상훈 한국인문학총연합회 대표 회장 축 사 : 김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전 총장	
	발 제	소 속	발표 및 내용
	2:45-3:00	박창원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국가 발전과 과학 기술 그리고 인문사회학
	3:00-3:15	장동익 공주교육대학교	초·중·등 과정의 인문소양교육 강화방안
	3:15-3:30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교양기초교육연구소장	대학의 교양교육강화
	3:30-3:45	김성민 건국대학교 동일인문학연구단장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통일교육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3:45-4:00	위행복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대표회장	팬데믹 상황과 인문학협동조합의 붕괴	
제 2 부	4:00-4:10	휴 식	
	4:10-5:00	논평 및 종합토론 사회 : 김승욱 한국인문학총연합회 공동회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윤영순 단장 전남대학교 불문과 류재한 교수 중앙일보 이후연 기자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이상훈 대표회장	

이 발표논문집은 2022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 목 차

박창원	한국학술단체 총연합회 이사장	국가 발전과 과학 기술 그리고 인문사회학	1
장동익	공주교육대학교	초중등 과정의 인문소양교육 강화 방안	8
박정하	성균관대학교	대학의 교양교육강화	21
김성민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통일교육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42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장	팬데믹 상황과 인문학협동조합의 붕괴	63

### 논평 및 종합토론 (진행: 김승욱 한국인문학총연합회 공동회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

한국연구재단 인문학단 윤영순 단장

전남대학교 류재한 교수

중앙일보 이후연 기자

한국인문학총연합회 이상훈 대표회장

70

# 국가의 발전과 과학 기술 그리고 인문사회학

박창원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

## 1. 서론

제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독립한 우리나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가 21세기의 초반인 지금 세계 10위권 내외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지 못했던 서유럽의 국가들이 18세기의 혁명 이후 지금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들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발전의 근원적인 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21세기 전반기인 현재는 인류에게 새로운 숙제를 주고 있다. 현대 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띠며 사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앞선 세기의 후반기에 시작되었던 국제화 내지는 세계화는 그 속도를 더하여 전 **세계가** 하나의 지역 사회처럼 움직이고 있고, 이에 따라 세계의 주요 거점 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가 뒤섞여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로 형성되고 있으며, 또한 지난 세기의 후반기에 시작되었던 컴퓨터 산업은 그 질과 양을 넓혀 인공 지능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적인 진화와 **과학 기술**의 발달 속에서 인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정신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숙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본고는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 혁명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제1차 혁명은 인류가 문자를 발명한 것이고, 제2차 혁명은 18세기에 서유럽에서 이룩한 것이고, 지금은 제3차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도중으로 보는 것이다.

제2차 혁명의 시기에 과학 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학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나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큰 목적이 되고, 제3차 혁명에 대처하는 방안을 우리의 **전통문화**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도 또 다른 목적이 되는 것이다.

## 2. 인류의 진화와 혁명

### 2.1. 인류 진화의 근원 - 언어의 사용

대략 수백만 년 전에 나타난 현생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다른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신체적으로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두 팔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에너지 - 자연적으로 생성된 불을 보관하기도 하고, 이를 넘어서 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에너지를 필요에 따라 **활용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특징은 인간은 언어를 종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사용하고, 선천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보편적으로 타고 난다는 것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전달받아, 새로운 지식을 재창조하여 이를 다른 사람 혹은 조직이나 집단에 소속된 인간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유된 지식을 개인이나 소수 혹은 다수에 의해 다시 재창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언어의 사용과 기능의 활용이 필수적이다.

인간은 언어의 사용에 의해 문화와 지식의 창조와 전달 그리고 공유를 하면서 새로운 지식의 재창조를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 2.2. 혁명의 단계와 특징

요즘을 흔히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칭하고, 18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 칭한다. 본고에서는 인류가 이루어낸 혁명을 아주 거시적인 차원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인류가 지구에서 탄생한 후 언어의 사용으로 다른 생물체와 다른 문명을 구축하고,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까지 하게 되는데, 이 언어는 음파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즉 음파 에너지가 소멸하게 되면 음파가 자연 소멸하게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문자이다. 문자의 발명으로 인해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를 본고에서는 인류의 제1차 혁명 - 문자의 발명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인류의 제2차 혁명을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혁명을 칭하기로 한다. 18세기 유럽에서는 여러 국가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의식과 기계 문명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이탈리아에서 완성되는 지동설, 영국의 증기 기관의 발명,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 등이 그것이다. 이를 두루 아울러 제2차 혁명이라 칭하기로 한다. 3차 혁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인간은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평생 걸리는 계산을 한순간에 완성하고, 무한대 용량의 저작물을 조그만 칩에 저장하여,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신(?)하게 될 새로운 도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의 지적 능력과 비견되는 이 혁명을 인류의 3차 혁명으로 칭하고자 하는 것이다.

### 2.2.1. 제1차 혁명 - 문자의 발명

#### 가. 고대 4대 문명의 문자 발명

이집트 중국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등지에서 문자를 발명하고 고대 문명 발생

#### 나. 문자의 혁신과 패권 국가

페니키아 문자

아람문자

그리스 문자

로마 문자

키릴 문자

진시황의 분서갱유 - 중국의 문자 통일과 한자문화권 형성

#### 다. 언어 문자 정책과 민족의 명멸

원나라의 파스파 문자

청나라 강희자전

#### 라. 일본의 도약

서양 문물의 수입

서양 언어의 자국어 번역 - 음차식 도입 및 의역어 창조

### 2.2.2. 제2차 혁명 - 과학 기술의 발달과 인문사회 학문의 조화

#### 가. 이탈리아의 지동설

- 천체물리학의 발달로 인간의 인문학적 사유 전환

#### 나. 영국의 산업혁명

-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간 생활의 혁신적 변화 및 향상

## 다. 프랑스와 미국의 시민혁명

- 시민 의식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과학의 개척

### 2.2.3. 제3차 혁명 - 인공 지능의 개발 - 인류의 지향점은?

#### 가. 과학 기술의 발달

한편으로는 인공 지능 시대로,

한편으로는 전체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세계화 내지는 국제화 시대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각각의 조직 사회가 세계 문화를 공유하는 다문화 사회로

#### 나. 문화에 대한 해석

인류가 살아온 문화적 현상에 대한 원인 해석은?

철학, 사회학, 정치학, 인류학, 여성학, 윤리학, 언론학, 언어학, 문학 등의 총체적 학문 탐구 필요

#### 다.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가치의 창조

앞으로 나아갈 정신세계의 방향은?

문화 제국주의, 문화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의 조화는?

## 3. 제2차 혁명과 학문의 조화

### 3.1. 제2차 혁명이란?

속칭 제1차 산업혁명을 본고에서는 제2차 혁명이라 칭한다. 이 혁명에 의해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의식 세계에 혁명이 일어나고, 자연의 새로운 발견에 의해 인간의 힘을 대체하는 새로운 학문이 **발전하고**, 왕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혁명에** 의해 인간 사회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 3.2. 제2차 혁명의 구성

#### 가. 이탈리아의 지동설과 천동설

18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과학 - 천체물리학의 발달로 인해 하늘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하늘을 돈다는 지동설이 성립한다. 이로 인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식 -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을 구분하고 사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의식’이 발달된다. 물론 주관이나 객관이란 용어 **자체**는 있었지만, 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의식세계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고, 인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

프랑스의 자연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데카르트(1596-1650)는 지식 연구의 목적을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기술을 개발하여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를 해석하여 인간 본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기하학적인 방법을 철학에 도입하여 근세 철학의 창시자가 되었고, **모든 학문을 논증적인 수학에 의거하여 이것들을 보편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독일의 칸트(1724 - 1804)에 의해 인식의 형식과 내용이 구분되게 된다. 즉 그는 기존의 합리론과 경험론이 비판받고 종합화되면서 인식의 형식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고, 인식의 내용은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을 이어받아 독일의 관념론 철학을 완성시킨 헤겔(1770-1831)이 피히테의 주관적 관념론과 셸링의 객관적 관념론을 통일하여 ‘절대적 관념론’을 완성시키는 것도 과학 기술의 발달에 의한 인식의 전환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즉 그는 사고와 존재의 동일성을 주장하고,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반드시 이성적이어야 하며, 이러한 이성(절대자) 개념이 정립, 반정립, 종합의 과정(변증법)의 과정을 거친다는 논의도 주관과 객관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고, 주관적인 인식에 의해 객관적인

이성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소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나. 영국의 증기 기관의 발명

18세기 중엽 영국에서는 물이 끓으면 부피의 확산으로 인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는 자연적인 사실의 발견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학문이 발달하였고** 이는 인간의 힘 내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한계를 극복하는 인공적인 힘을 창조하는 시발이 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인 사실이나 화학적인 사실의 발견에서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학문적인 이론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물리적인 사실이나 화학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인간의 **생활은**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된다.

1764년 글래스고 대학의 수리소에서 일하던 와트는 기존에 존재하던 뉴커먼기관을 대폭 수리하고 개량하면서 1769년 ‘화력기관에서 증기와 연료의 소모를 줄이는 새롭게 고안한 방법’의 특허를 취득한다. 이러한 와트의 노력은 증기 기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혁신과 발명을 이끌게 되는데, 거리가 **먼 지역에까지 대량으로** 빠르게 운반하고, 공장을 자동화시켜 수력으로 움직이던 공장을 **일 년 내내** 돌아가게 한 것이다.

대량 생산과 대량 운송은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서 새로운 경제학을 키우고, 새로운 경제학은 자본의 효율적인 운용과 배분을 유도하고, 인간의 생산력과 생산 체제의 혁명적 변화는 새로운 학문을 유발시키고, 이 학문에 의한 비약적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다.

## 다.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 전쟁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는 사상 혁명으로서 국가의 주체를 바꾸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몽테스키외**, **볼테르**, **루소** 등에 의해 주창되고 배양된 **시민혁명**은 전체의 국민이 국왕의 신하가 아니라,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확립하고 다른 인간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기 위해 다시 말해 개인의 주체성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명의 성공으로 인류의 역사는 왕이나 군주의 독재에 의한 혹은 그들에게 충성하기 위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 개인 중심의 역사로 변화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혁명의 기반 내지는 이론적인 토대는 **인문·사회적인** 학문 혹은 사상에 근거한 것이다.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비슷한 성격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이 미국의 **독립 전쟁**이다. 영국 본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반대하고 영국 본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던 전쟁이지만,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 형태를 타도하고 일반 백성 중심의 민주적인 **정치 형태**를 이룩하고자 했던 **인문·사회적인** 이념에 의한 혁명이었다는 점에서 프랑스 혁명과 공통점을 가진다. 워싱턴에 의해 독립군의 전투는 주도되었지만, 혁명의 기본적인 혹은 이론적인 배경은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 선언**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개인**이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계약에 의해 정부를 세우고, 계약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범할 때 국민은 그러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혁명권을 **가짐**을 선언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미국의 독립 전쟁은 둘 다 공통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인간 중심의 **인문·사회적인** 이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진행**되어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다.

### 3.3. 제2차 혁명의 특징

#### 가. 자연과학에서 인문·사회적 인식 발달

##### 나. 자연과학, 인문학, 사회과학의 상호 작용과 조화

## 4. 제3차 혁명의 지향점 -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

### 4.1. 과학에 의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

가. 컴퓨터의 저장량 및 계산 속도의 폭발적 증가

나. 인공 지능의 등장

### 4.2. 창조와 혁신에 기초한 정신문화의 개발 - 훈민정음의 예

#### 가. 외래문화의 수용

중국 음운학의 이론을 수용한다. 음절을 분석하는 것을 수용하고<sup>1)</sup> 초성의 조음 위치를 아설순치후로 5분하는 것도 수용한다. 그리고 **조음 방식**에 따라 초성을 청탁으로 구분하는 것도 수용한다.

#### 나. 전통문화의 계승

한자를 빌어 우리말을 표기하던 차자표기법에는 음절의 3분법이 내재되어 있다. ‘가(可)을

#### 다. 새로운 사과의 첨가

모음의 분류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고 이를 한 단위로 표기

발화단위의 구성/음절의 구성

표기법의 구축/형태음소적 표기와 음소적 표기 중 음소적 표기 선택

#### 라. 자질 문자의 완성 - 세계 문자사의 재정립

##### 1. 단어 문자

고대 4대 문명 발상지의 상형 문자 - 5,000년 전 내지는 7,000년 전

##### 2. (음소)음절 문자 -

페니키아 문자(이집트 문자에서 발달된 것으로 추정) - 기원전 1,100년 경에서 기원후 300년

아람 문자(페니키아 문자에서 발달 - 서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된 **국제 공용문자** - 페르시아 제국)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후 7세기까지

브라함 문자(고대 인도에서 사용,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티벳 등으로 전파)

- 기원전 3세기 기원후 4세기까지 사용

##### 3. 음소 문자

그리스 음소 문자(페니키아 문자에서 발달) - 기원전 1,000년 경

라틴 문자(로마 문자)(그리스 문자에서 발달)

키릴 문자(그리스 문자에서 발달)

##### 4. 자질 문자

- **한글**: 15세기 조선에서 세종이 발명

- **자음**: 구성요소인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문자의 제자에 사용

\* 동일한 요소를 공유하면 동일한 조음 위치

---

1) 중국의 음절 분석은 2분법이다. 초성과 나머지(중성과 종성)로 분석한다. 훈민정음에서는 중국의 2분법과 차자표기법의 표기법을 참조하여 음절 3분법을 완성한다.

<ㅁ, ㅂ, ㅅ> 등은 ‘ㅁ’을 공유 -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면서 소리가 남.

<ㄴ, ㄷ, ㅌ> 등은 ‘ㄴ’을 공유 - 혀끝이 위에 있는 잇몸에 닿았다 떨어짐.

\* 문자 모양의 획이 많고 적은 것은 조음 방식을 반영

획이 간단한 ‘s, a’ 등이 소리가 약하고, ‘v, x’ 등의 소리가 썸.

\* 문자 모양이 겹쳐 있는 것은 모두 된소리 - ㄱ, ㄷ ㅈ ㅊ ㅅ 등.

- 모음의 경우 혀의 앞뒤 위치, 원순성, 개구도 등을 활용하여 모음 제자

### 4.3. 균형과 조화에 기초한 대립 요소의 공존

- 한글맞춤법의 조화 : 상반된 두 원칙의 조화 -

#### 4.3.1. 표기법의 두 원리

##### 가. 음소적 표기

발음되는 대로 표기

##### 나. 형태음소적 표기

기본형을 밝혀 표기

#### 4.3.2. 두 원리의 조화

##### 가. 음운 규칙의 공시적 타당성

[감만]은 ‘값만’으로 표기, [더위라]는 ‘더위라’로 표기

‘값만’은 음절구조제약에 의해 ‘ㅅ’ 탈락, 동화 규칙에 의해 ‘ㅂ’이 ‘ㅁ’으로 발음

‘덥고, 더위라’는 모두 발음대로 표기. ‘덥어라’로 표기할 경우 ‘더위라’로 발음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음.

##### 나. 상반된 원리를 객관적 기준에 의해 조화

공시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형태음소적 표기, 공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은 음소적 표기

### 4.4. 새로운 정신문화의 창조

#### 4.4.1. 상호 의존성 인지

대립적인 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다.

형식 없는 내용 없고, 내용 없는 형식 없다.

본질 없는 현상 없고, 현상 없는 본질 없다.

#### 4.4.2. 상반된 원리의 조화

##### 가. 각각의 원리에 대한 기준점 확보

##### 나. 궁극적 존재의 확인

理氣二元的一元論(이기이원적일원론, 기대승)

다름을 이해하고(지성), 받아들이고(관용), 배려하여(사랑), 같이 살아가는(공존) 방법 모색.

## 5. 결론에 대신하여 - 학문의 균형 발전을 위해

### 5.1. 혁명의 성격과 현황

#### 가. 제1차 혁명 - 인류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나. 제2차 혁명 - 과학 기술과 인문학 그리고 사회학의 균형 잡힌 발전 모델 제공
- 다. 제3차 혁명 - 새로운 사회로 새로운 과제 등장, 해결책은?
- 라. 현황 - 연구의 불균형(1) 연구 지원의 극심한 불균형, 학문의 불균형 심화  
           연구의 불균형(2) 다문화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연구 소홀

## 5.2. 해결 방안(1) - 목적과 수단의 구분

- 가. (궁극적인 목적) 국가와 민족의 발전
- 나. (이를 위한 수단) 학문의 발전
- 다. ('나'를 위한 수단) 선택과 집중
- 라. ('나'를 위한 목적) 학문의 균형과 조화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정책들의 목적과 수단, 방법 등을 고려하고, 이들의 관계 - 상하관계, 의존 관계, 대등 공존 관계, 대등 무관 관계 역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5.3. 해결 방안(2) - 대학과 학과 차원

- 가. 영역별 교원 수, 학생 수, 개설 교과목 숫자의 균형,
- 나. 전공과 교양 교과목의 개발 및 균형 배치
- 다. 취업 방향의 설정 및 이를 위한 교과목 개발

## 5.4. 해결 방안(3) - 국가 차원

- 가. (대통령 직속의) 학문 발전을 위한 자문회의 설치
- 나. 학술진흥청 설치 - 인문 분과, 사회 분과 등 설치
- 다. 다문화청 설치 -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이민, 국제 결혼, 교육, 배려와 공존에 관한 총체적 연구

참고문헌 : 생략

# 초 · 중등과정의 인문소양 교육 강화 방안

장동익(공주교육대학교 교수)

## 1. 왜 인문소양 교육인가?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인문학에 관한 관심이 줄어드는 추세라 할지라도, 인문소양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문소양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인문학에 관한 관심이 줄어든다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2016년 8월 4일)>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의 시행은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의 중요성을 옹변해 주고 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우리 사회가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문학에 관한 관심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요청이기도 하다.

더불어 교육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문소양과 관련된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다.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안) (2017~2021)’(교육부, 2016a) 과 ‘생애주기별 체계적 연속적 인문교육’(교육부, 2016b)을 기본 입장을 담았다. 그래서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이 초·중등 교육과정 속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안)’ 그리고 ‘생애주기별 체계적 연속적 인문교육’의 내용과 방향이 제시하는 바를 토대로, 이들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인문소양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문소양 교육은 교육 현장에 융화되지 못한 채, 무명 무실해 질 것이 분명하다.

이 법안과 교육부의 계획안은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이 초·중등 전 과정에 걸쳐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과정을 이 법률과 계획안의 근본 취지에 따라 초·중등 전 과정을 연속적이며 유기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강조한 창의 융합형 인재상을 강조하면서,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과 개편을 시도하였다. 또한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을 통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결국 창의 융합형 인재는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을 초·중등 전 과정을 연속적이며 유기적으로 구성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기를 수 있다.

교육부가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설령 인문소양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했다 할지라도,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의 진정한 방법과 내용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여기에서 더 큰 어려움이 생겨난다.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현재 교육 현장에는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장애물은 크게 2가지로 언급되고 있다. 첫째, 우리 교육계는 개별 교과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은 교과 이기주의로 나타나기도 한다. 물론 개별 교과 각각

의 고유성과 독창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학문이 그러하듯이, 교육의 영역 안에서, 교과와 경계, 내용, 목적은 차이 못지않게 공유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교육으로서 개별교과들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을 협력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 이러한 자각 때문에 그리고 교과 이기주의의 병폐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교과와 유기적 또는 융합적 관점과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 전과정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우리 교육계의 현실은 입시 위주 교육이 뿌리 깊이 자리하여, 비판적 사고와 도덕적 공감 등을 포함한 전인적 인문소양 능력을 함양하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입시 위주 교육은 자유로운 사고와 탐구 능력을 함양하기보다는 교과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에 집중한다. 진학을 위한 교육은 교육의 근본적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다. 그러나 입시 위주 교육은 주객이 전도되어 부수적 결과에 집착한다. 결국 우리의 교육 현실은 교육의 부수적 결과를 교육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전도된 방식의 교육으로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실현하기는커녕, 엉뚱한 결과만 양산되고 있다.

물론 입시 위주 교육이 참된 교육에 장애라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문제점이 오랫동안 지적되었으며, 동의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입시 위주 교육이 맹위를 떨치며, 권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를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방치하는 우리의 현실이 흥미롭다고 표현하였지만,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넘어서 바보들이나 할법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진정한 잘못은 어떤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개선하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교정하지 않는 것은 바보나 멍충이들이나 할 짓이다.<sup>2)</sup>

어쨌든 참된 교육에 가장 문제이면서 장애가 되는 입시 위주의 교육은 방치되어,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횡포를 부리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에서 입시 위주 교육을 폐기하지 않고서 참된 교육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에서 생겨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완화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온당한 방식일 수 없다. 단언코 이런 방식은 교육의 근본적 목적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나 입시 위주 교육이 대체로 버티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입시 위주 교육이 교육의 참된 내용과 방법을 방해한다할지라도, 교육은 포기할 수도 잠시 중단할 수도 없다.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참상을 약화시키거나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이지는 않을지라도, 참된 교육의 방향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끝내 찾아내지 못할지라도 찾으려는 노력은 교육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할일 수 있다. 이런 활동은 더 나아가 입시 위주 교육을 폐지하고, 더 나은 교육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문소양 교육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니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학, 역사, 철학, 그리고 문화예술까지 확장된 통합적 관점의 교육이 필요하다.

---

2) 멍충이가 올바른 표기법이지만, 보다 강조하기위해서 '멍충이'라고 적었다.

## 2 인문주의 교육의 관점과 특성

인문소양 교육을 위해서는 인문소양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문주의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여기에는 교육의 기원과 본질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결부될 수밖에 없으며, 교육 과정에 관한 담론도 필수적으로 동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과정 담론이 상호 충돌하는 이론들로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인문소양 교육이 무엇을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 무엇인지 분명한 관점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다. 앞에서 말한 대로 상충하는 내용을 각각 근간으로 삼아 각각이 주장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인문주의 교육의 관점과 특성은 다음과 같다.<sup>3)</sup>

### 1) 고전적 인문주의

- \* 이상으로서 '인간적 완성'을 지향
- \* 인류 역사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되는 고전을 강조
- \* 주관과 현재의 세계관에서 '보편'과 '객관'의 세계관 형성을 목표로 삼음

### 2) 낭만적 인문주의

- \* 선한 자아가 인간 고유의 본성이라고 주장
- \* 인간의 완결성을 개인의 내적 본성의 실현으로 파악
- \* 내면세계와 자아의 성찰을 통한 개인의 내적 본성의 실현

### 3) 실존적 인문주의

- \* 인간이 합리적 존재라는 고전주의 관점을 거부
- \* 인간 고유의 본성을 선한 자아로 보는 낭만주의 관점을 거부  
-내적 본성이나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 \* 인간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 \* 인간의 정체성은 주어져 고정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창조해 가는 것이다.

### 4) 급진적 인문주의

- \* 네오 마르크주의에 근간한 비판적 교육 담론
- \* 사회 현실을 진단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 억압적, 비인간화된 삶에서 해방
- \* 자신의 삶을 근거지우는 권력에 대한 인지를 강조

---

3) Aloni, N.: A redefinition of liberal and humanistic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43(1), 1997, pp. 88-95 참고

\* 삶의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 비판적 의식과 관점의 형성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 강조

각각의 관점은 서로 다른 형이상학적 가정과 인식론적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각각의 관점에서 인문주의 교육의 지향점이 달라지며, 기대하는 성과 역시 다르다. 어느 한 관점을 채택하고 다른 관점을 배제하여 인문소양 교육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인문주의 교육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소양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다양한 인문주의 관점 중에서 하나를 취사선택하여 교육에 적용하기 보다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 소양 함양을 인문주의 교육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5) 민주적 인문주의

바람직한 인문주의 교육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 소양 함양을 인문주의 교육의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것은 단순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장하는 인간적 완성, 내적 본성의 실현 등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의미나 가치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민주적 인문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민주적 인문주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정의를 숙고하여 실현 또는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교육 방법이다. 다음의 관점은 민주적 인문주의 교육의 특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인문주의적 학습은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처한 현재 상황의 한정된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의 걱정, 관심사, 사고방식을 대면하게 해준다. …(중략)… 인류학이나 문화지리학도 마찬가지로, 잘 계획된 역사 교육은 다른 방식의 생각과 행동의 논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문화적 차이를 지성의 결핍 차원으로 환원시키지 않도록 한다.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인간적 다양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심지어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월터 파크가 주목했듯이 다원적 정치 공동체에 있어서 주요 장애 중 하나는 바로 일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민주적 행동을 취하는 “길을 걷는 것”을 거부한다는 점이다. …(중략)…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에 대한 합리적 기반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4)

이것은 역사교육을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교육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민주적 인문주의 교육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민주적 인문주의의 관점은 여러 교과를 아울러 인문주의 학습 요소를 구체화하는 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서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이 언급되는 맥락은 주로 고전 읽기를 통한 전통에의 입문 혹은 정체성의 탐색에 있었다. 이것은 주로 고전적 인문주의 교육 혹은 낭만적 인문주의 교육의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고전적 인문주의와 낭만적 인문주의가 현대의 사회에 적절한 교육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이다. 오히려 인문주의적

4) Barton, K. & Levstik, L.(2004). *Teaching History for the Common Good*.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2004, p. 37

접근을 확대 적용한 민주적 인문주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이 확대될 수 있는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 3. 인문소양 교육

인문주의 교육의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통해서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물론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은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인문소양 교육 역시 다음의 3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sup>5)</sup>

첫째, 도구적인 합리성을 넘어서서 인간 문제에 대해 깊이있게 고찰하는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둘째,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사고하는 방식을 대면하는 인간에 대한 확장된 관점의 고양,

셋째, 개인적이고 사적인 행동을 통해 사고를 함양하는 것 외에도 사회적인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민감함을 갖추고 사회적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

#### 3-1. 인문소양 교육 방법

인문소양이란 ‘자신다움, 자신의 고유성이 무엇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사회 속에서 ‘인간다움, 인간적 가치란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를 탐구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관점을 갖추고 삶 속에서 이를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은 인류의 지성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성찰적 태도, 인간다움에 대한 감수성,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에 대한 지향과 실천력을 갖추도록 한다.

#### 3-2. 인문소양 교육의 기본 원칙

인문소양 교육은 학교급별 목표와 영역,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인문소양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문학의 특성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인문학적 상상력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 3-3. 인문소양 교육과 교육과정

---

5) Barton, K. & Levstik, L.(2004). 2004, p.36-38

인문소양 교육도 교육과정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과정은 교육계에 헌법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 내용과 방법이 결정된다.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 역시 이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떤 교육이든 교육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문소양 교육이 초·중등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 전과정을 포괄하고 있는 교육과정 속에서 먼저 이해되어야 한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인문학 교육은 인문학 지식을 단편적으로 축적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과 인간, 나아가 사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고 이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말한다. 물론 인문학 고전 속에서 실마리를 구하고 의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탐색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나아가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여 창조적인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결국 인문학 교육은 자기비판과 자아 성찰의 방법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모습과 조건을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는 교육이다.

그렇다면 인문소양 교육의 가치는 “인문학을 이루는 문학, 역사, 철학의 지적이고 문화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비판적인 사고, 인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한편,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반성적 태도와 실천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박주현 외, 2016).

## 4. 교과별 인문소양 학습 원리

개별교과의 인문소양 학습원리는 인문소양 교육원리를 토대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발휘해야 하는 사고력은, 공감적 이해력(도덕적 상상력) 비판적 사고력, 성찰적 사고력이다. 예를 들어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공감적 이해력으로서 인물이나 화자의 사고 및 행동에 대해 도덕적으로 접근하여 인지하고 확인하는(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비판적 사고력으로서 인물이나 화자의 사고 및 행동이 지닌 가치를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성찰적 사고력으로서 인물이나 화자의 삶이나 정서에 대해 공감 또는 객관화하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사고력의 범주 3가지를 학습 원리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인문소양 교육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4-1. 국어과

사고력의 3가지 범주에서 국어과의 인문소양 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범주	개념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상상하기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텍스트에 제시된 경험의 의미와 가치 주장을 상상하고 이해해 보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텍스트에 제시된 여러 경험과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주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텍스트에 제시된 여러 경험과 가치를 자기 고유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결과를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이해와 적용의 방향은 인문학적 상상

	력을 기반으로 한 '공감'과 자신의 해석을 근거로 한 '소통', 자기 삶의 변화를 지향하는 '의지적 선택' 등 다양한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 주체적 이해와 적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텍스트에 제시된 경험과 가치를 자기 삶의 문제와 관련짓는 것이다
--	--

#### 4-2. 역사과

사고력의 3가지 범주에서 역사과의 인문소양 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범주	개념
비판적 역사 읽기	역사 자료에 내재된 관점의 존재를 파악하고 과거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인지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 자료를 비판적으로 독해하기
시·공간적 비교의 관점과 다원적 이해	시간적 비교 작업을 통해 역사에서 변화와 지속의 측면을 검토하고, 공간적 비교작업을 통해 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며, 역사적 상황의 인과관계를 이루는 복합적인 특성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기
역사적 상상력과 과거인의 관점 이해	현재의 관점이나 가치를 넘어서서 과거 인물의 행위와 생각을 당시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 해당 시대의 맥락에 적합한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역사적 문제 의식과 역사적 판단	인류가 추구해온 가치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과거 인간 행위의 결과 형성된 오늘날 사회의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과거 속에 존재했던 가능성을 대안적 미래와 연관 지어 어떤 미래를 지향할 것인가를 탐색하기

#### 4-3. 도덕과

사고력의 3가지 범주에서 역사과의 인문소양 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범주	개념
비판적 사고	* 도덕적 추론 과정에서 제시된 근거가 신뢰할 만한지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자신의 사고를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 도덕적인 맥락에서 무엇을 믿을지 혹은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합당한 반성적 사고
도덕적 공감	* 상대방을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상대방을 돕는 행동을 구상하게 하는 정서 *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그 개인적 곤경 상황을 느끼고 이를 개선해 주고자 하는 정서
도덕적 성찰	* 자신을 반성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객관적 입장에서 바

	라보며 도덕적으로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 것 * 도덕적 관점에서 자신의 마음과 삶의 방식 그리고 나와 관계된 공동체 혹은 세계(세상)에 대하여 반성하고 살피는 것
--	--

#### 4-4. 미술과

사고력의 3가지 범주에서 역사과의 인문소양 학습 원리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범주	개념
비판적 사고와 성찰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 문화 속 다양한 맥락과 의미를 해석하고, 인간다움의 가치를 탐구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해가는 능력(태도)
감수성과 공감	미술 문화속 다양한 인간의 삶의 문제에 반응하고 공감하며 인류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능력(태도)
창조적 실천	예술과 문화를 애호하고,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하며, 미술 활동을 통해 사회 현상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능력(태도)

### 5. 인문소양 교육의 학습 주제

#### 5-1. 국어과

영역	주제	내용요소	
자아, 타자, 사회의 인문학적 탐구	자아와 인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나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li> <li>2.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li> <li>3.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li> <li>4. 나는 나의 감정을 나는 어떻게 수용하고 표현하는가?</li> <li>5.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떨 때 행복한가?</li> <li>6.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아의 발견</li> <li>·인간 존재의 탐구</li> <li>·자아의 성찰</li> </ul>
	사회와 타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7. 사회에서 만난 사람 중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인가?</li> <li>8.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li> <li>9. 내 주변의 타인에 대해 무엇을 공감하고 무엇을 공감하지 못하는가?</li> <li>10. 의사소통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11. 사회 속 개인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가?</li> <li>12. 우리 사회에서 다수의 횡포로 소수가 억압당한 사례가 있는가? 이런 상황의 문제는 무엇인가?</li> <li>13. 나와 타자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면, 그 갈등을 어떻게</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친밀한 타자와 살기</li> <li>·소외된 타자와 살기</li> <li>·나와 다른 타자와 공존하기</li> <li>·사회 속에서 살기</li> <li>·바람직한 의사소통의 방향 탐구</li> <li>·바람직한 공동체의 탐구</li> </ul>

		해결할 것인가? 14. 이상적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공동체는 어떠한가? 15. 공동체의 발전은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16. 우리 사회에 '다름'으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는가? 17.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환경 보전 노력은 왜 필요한가?	
문학의 메타적 읽기	문학의 안과 밖	18. 문학이 담고 있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19. 문학은 사회·역사적 맥락과 어떻게 소통해 왔는가? 20. 문학은 인류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제시하는가? 21. 현실 세계가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일상 속의 문학 ·문학의 독자성 ·문학으로 본 세상
고전의 메타적 읽기	고전의 안과 밖	22. 고전이 내 삶의 여러 문제들과 관련을 갖는가? 23. 고전은 그것이 창작된 시대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24. 고전이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재창작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25. 고전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아 온 이유는 무엇인가? 26. 고전은 인류 공동체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고전은 미래 사회에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가?	·나의 삶과 고전 ·고전의 본질과 가치 ·고전의 재해석과 재창작

## 5-2. 역사과

구분	주제	내용요소
역사의 흐름과 주하기 (시간성과 인간의 삶)	1.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과거와 현재의 관련	·나, 너 우리의 역사성 ·역사 공부와 현재 이해 ·역사의 현재성과 참여
	2. 과거 사람들이 중시했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가?: 변화와 지속	·과거 인간의 삶과 오늘날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다른 시대 인간의 삶에 대한 맥락적 이해
	3. 역사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과 관계	·변화의 원인과 결과(단기적·장기적 원인, 의도된 혹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여러 원인이 연결되는 방식) ·변화의 유형과 역사적 의의
역사 텍스트와 만나기 (역사 서술과 해석)	4. 우리는 과거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는가?: 기록과 증거	·역사 서술에서 기록과 증거: 문자 자료, 비문자 자료, 구술 자료 ·역사 서술에서 사료의 선정과 활용을 위한 비판적 접근 및 역사적 의미 찾기
	5. 역사 해석에서 왜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가?: 역사 해석의 잠정성과 논쟁가능성	·역사 해석에서 관점의 역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 해석의 변화
	6. 과거를 왜 나누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시대 분류	·시대별 특징 찾기 ·시대 나누기

	7. 역사 서술의 범위는 어떻게 확대되는가?: 역사 서술 대상의 공간/주제	·나의 역사, 가족사, 마을의 역사, 지방사 ·한국사, 세계사, 지구사 ·여성사, 노동사, 환경사
	8. 왜 대중문화는 특정 시점에서 특정 인물과 시대를 재현하는가?: 대중 문화 속 역사	·소설(픽션), 영화,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에서 나타나는 역사의 재해석 ·'픽션'의 탄생
	9. 역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과거 기념하기	·신화와 이야기 ·기념일, 기념물, 기념관, 기념행사 ·박물관과 문화재
역사 읽기, 사회와 만나다(역사적 문제의식과 우리 삶의 지향)	10.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역사의 주체	·영웅과 역사적 사건을 만든 이름없는 사람들 ·개인과 사회 구조
	11. 동시대 같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왜 '다름'이 존재할까?: 역사적 경험의 다양성과 비교의 관점	·동시대 서로 다른 개인/집단의 경험과 관점; 동일한 사건이 국가 안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 ·특정 사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집단의 상호 작용의 영향
	12.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교류와 공존의 역사	·서로 다른 문화 간 상호작용(충돌 및 갈등을 포함한 '교류')을 가져온 요인과 결과, 이에 결부된 개인 및 집단의 선택 ·전쟁과 이동에 따른 문화 전파 및 사회 변화 - 문화적 접촉으로 인한 문화 창조 및 변형
	13. 역사에서 중요성은 누가,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는가?	·당대적 중요성과 후대에 인지되는 중요성 ·역사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기준과 역사적 의미 부여의 상대성
	14.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역사와 가치 판단	·유사한 상황에 처한 동시대 사람들의 서로 다른 선택 ·현재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향해야 하는 가치 탐색

### 5-3. 도덕과

구분	주제	내용요소
개인영양	1. 나는 누구인가? : 자아 성찰	·'나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자아 성찰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타인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생각하기 ·현재 걸로 보이는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인지 고민하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자신의 자아(지적, 정서적, 신체적, 행동적, 창조적 자아)를 탐색하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기
	2.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 도덕적 자아 정체성	·현재 자신의 모습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생각해보기 ·아직 실현되지 않은 나의 잠재적인 능력은 무엇이 있는지 탐색해보기 ·나를 도덕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기 ·'더 나은 나'로 발전하기 위해 경계하고 극복해야 할 요소를 찾아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을 도덕적인 존재로 실현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찾아보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li> </ul>
	3.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 도덕적 삶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이 '무관심한 자, 찢러보는 자, 꿈만 꾸는 자, 목적 지향적인 자' 중 어디에 해당 하는가 생각해보기</li> <li>·직업은 삶의 목적이 아님을 깨닫고, 직업을 통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li> <li>·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과 수단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구분하기</li> <li>·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증진하는 삶의 고귀한 목적을 탐색하고 선택하기</li> <li>·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이해하고, 행복에 기여하는 도덕적인 삶의 목적을 설정하기</li> </ul>
	4.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 고통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사례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기</li> <li>·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각각에 따른 결과를 성찰해보기</li> <li>·일어난 일에 대한 관점과 태도가 고통을 극복함에 갖는 중요성을 이해하기</li> <li>·바꿀 수 없는 것은 수용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를 가짐으로써 고통을 극복하기</li> <li>·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회복 탄력성을 갖기</li> </ul>
대인관계영역	5.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려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기</li> <li>·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손해가 아닌 이유를 생각하기</li> <li>·일상생활에서 베푼 배려가 자신과 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기</li> <li>·자신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들이 원하는 배려를 제공하는 '배려의 원칙' 이해하기</li> <li>·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역할 채택 및 공감을 통해 배려를 연습하기</li> </ul>
	6.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 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문화, 신념, 성적 지향 등 오늘날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요소를 파악하기</li> <li>·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을 비난했거나,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생각해보기</li> <li>·'다름'과 '틀림'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려는 마음을 갖기</li> <li>·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기</li> <li>·친구, 가족, 이웃 등 평소에 자신과 생각, 성적 지향, 신념 등이 달랐던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연습하기</li> </ul>
	7. 혼자서는 어려운 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상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활동을 통해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기</li> <li>·전문화 및 세계화 시대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li> <li>·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상생의 의미와 범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기</li> <li>·작은 힘이 모였을 때 갖는 힘을 생각하고 상생의 가치를 성찰하기</li> <li>·주변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계획하기</li> </ul>
	8. 피할 수 없는 갈등,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갈등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갈등은 일상적이며 모든 인간관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li> <li>·갈등의 부재보다는 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깨닫기</li> <li>·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하기</li> <li>·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효과적이고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지켜야 할 점을 찾아보기</li> <li>·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려는 노력의 자세를 갖기</li> </ul>
공동	9.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한 모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회, 절차, 결과'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정의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기</li> </ul>

체 영 영 영	인가? :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타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례와 그 반대 사례를 찾기</li> <li>·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롭지 않은 요소와 그 해결 방법을 찾기</li> <li>·정의로운 사회의 모습과 그 특징을 살펴보기</li> <li>·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찾아 노력하는 자세를 갖기</li> </ul>
	10. 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시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기</li> <li>·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합당한 의무가 무엇인지 이해하기</li> <li>·더 나은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행동이 필요함을 이해하기</li> <li>·공동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인지 찾아보기</li> <li>·국가에 속한 시민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도덕적 과제를 찾아 보기</li> </ul>
	11.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 평화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쟁이나 폭력에 무감각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기</li> <li>·전쟁이나 폭력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님을 인식하기</li> <li>·공동체 간의 관계 혹은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폭력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li> <li>·평화는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초임을 이해하기</li> <li>·국제 사회에서 발견되는 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을 찾기</li> </ul>
	12.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자연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기</li> <li>·자연이 인간에게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인간중심주의가 갖는 위험성과 한계를 이해하기</li> <li>·인간과 자연이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로, 자연친화적 삶의 필요성과 의미를 이해하기</li> <li>·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 친화적 삶을 실천하려는 자세 갖기</li> <li>·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삶의 방법을 찾아보기</li> </ul>

#### 5-4. 미술과

구분	주제	내용 요소
미술과 미적 체험	1. 다양한 공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미적 대상에 대해 나는 직관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 미적 대상의 발견과 반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공간에서 미적 대상의 특징 발견</li> <li>·자신과 주변 대상, 환경, 현상과의 관계 탐색 및 반응</li> <li>·생활 속 미술에 담긴 인간의 모습과 정서 탐색</li> <li>·미적 대상에 대한 직관적, 정서적, 감정적 반응 묘사</li> </ul>
	2.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 미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맥락의 미술의 탐색과 ‘미’에 대한 주관성, 상대성, 다양성 이해</li> <li>·자신과 타자의 미적 인식 비교</li> </ul>
미술과 정체성	3.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내면세계 탐색 및 발견</li> <li>·자신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 탐색 및 발견</li> <li>·다양한 관계를 넘어 세계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 탐색</li> </ul>
	4.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시대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였는가?: 작품에 투영된 개성적, 시대적,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개성적, 시대적, 사회·문화적 배경 탐색</li> <li>·미술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 문제의식, 시대적 및 사회·문화적 관점 탐색</li> </ul>

	문화적 맥락	·작가의 정체성 및 시대적, 사회·문화적 관점의 표현 방식 탐색
	5. 미술 문화는 나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미술 문화와 나, 공동체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한 미술 문화 탐색 ·미술 문화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와 소통하는 방법 탐색 ·미술 문화가 나와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탐색
미술과 인문학적 가치	6. 미술이 지닌 시대적, 지역적, 조형적 특징과 인문학적 가치는 무엇인가? : 미술 문화의 다원성과 인문학적 가치	·다양한 배경을 갖는 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 인간의 정서, 사건 등 탐색 및 질문하기 ·미술 속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견해 탐색 및 이해 ·현대사회의 다양성과 세계 미술 문화의 다원성 간 관계 탐색 ·세계 미술 문화에 나타난 인류애 및 공감 탐색
미술과 참여	7. 미술을 통해 사회 현상과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나와 우리의 사회 참여	·자신과 세계의 미적 가치를 구현하는 미적 조화와 창조 방안 모색 ·미술과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 사례 및 방안 모색 ·사회 현상과 문제 해결을 위한 미술의 활용 방안 모색

## 6. 제언

1.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은 실천을 동반한 올바른 인성 함양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
2.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은 관련된 여러 교과가 통합적 방법, 즉 융복합적 방식이어야 한다.
3. 인문학과 인문소양 교육은 초·중등 전과정에 걸쳐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연관성을 유지하는 교육 원리와 교육 주제를 설정해야 한다.
4. 단기적으로는 입시위주 교육의 병폐를 방지하고 약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인문학과 인문소양, 인성 함양을 위한 근본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대학의 교양교육강화

박정하(성균관대)

## 1. 교양교육과 인문학

### (1) 교양교육의 본질

#### ■ 교양교육의 본질적 의미

○ 최근 교양교육의 중요성은 대학 내외에서 모두 강조

- 교양대학 등 교양교육 전담 기관을 설치한 대학도 크게 증가
- 이런 현상은 교양교육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변화하는 직업 환경의 영향 때문에 생겨난 것
- 이미 평균적 한국인의 경우 삶의 전 주기를 통해 여러 개의 직업을 가져야 하지만, 새로운 직업들이 안정화되지 않은 채 계속 유동적인 상황에서 표준적 지식 전수에 몰두하는 전공교육만으로는 변화하는 미래의 직업 생활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
- 이런 상황에서는 교양교육을 통해 일반적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메시지가 대학 내외에서 힘을 받고 있음

○ 그러나 교양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살린다면 직업적 전망보다는 인문교육의 성격이 더 부각 해야함

- 교양교육은 특정한 직무를 위한 능력이나 전문성, 혹은 직업을 위한 일반적 역량을 기르는 영역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영역
- 내용에서는 인문교육이 그 중심에 자리해야 함. 누스바움은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에서 인문교육이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줌. 누스바움은 경제개발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되면서 초래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간계발 패러다임에 기초한 ‘인문교양과 예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교육의 목표로서 비판적 사고, 세계시민적 소양, 서사적(공감적) 상상력이라는 세 가지 능력을 제시함.<sup>6)</sup>
- 비판적 사고 배양을 위해서는 철학을 기초로 논쟁과 글쓰기 훈련이 필요하고,

6) 마사 누스바움, 『학교는 시장이 아니다』, 우석영 역, 궁리, 2016

세계시민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역사 교육을 필수로 하고 여기에 국제경제, 세계종교에 대한 이해, 지리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며 서사적(공감적) 상상력 배양을 위해서는 문학과 예술의 역할이 결정적이므로 인문교육이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누스바움의 주장임

## ■ 교양교육의 정의<sup>7)</sup>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제시하는 <표준모델>에 따르면 교양교육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 “교양기초교육<sup>8)</sup>이란 대학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기본적 지식 및 자율적 학구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교육이다. 특히 글로벌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원활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자율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 이 정의는 교양교육과 관련된 전통적 논의들을 포괄적으로 반영

- 전통적 의미에서 ‘교양교육’ (Bildung)이란 ‘인간다운 인간’을 형성한다는 의미

- 피히테(J. G. Fichte)는 이를 “스스로가 스스로를 창조하는 정신적 자아의 자기형성”이라고 표현하였고 훔볼트(K. W. Humboldt)는 “인간의 인간다움 그 자체만을 위한 주체적 자아의 형성이요, 자기형성의 이상을 준거로 하는 자기반성적 태도의 도야이자 아울러 타자 및 세계에 대한 관계의 형성이기도 하다”고 규정

- 훔볼트는 교양교육의 목적을 “보편적 지식과 품성에 바탕 한, 특정의 직업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선하고 모범적인 사람됨의 구현”이라고 밝혔는데 달리 말하면 교양교육에서는 “인간 본성의 내적 능력을 지혜로 키워 올리는 것”(J. H. Pestalozzi)과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판단하여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해 내는 능력의 함양”(F. Paulsen)이 중심에 자리하게 됨

○ 앞의 정의는 전통적 의미를 반영하면서도 자유교육(Liberal Education)과 일반교

7) 이하의 내용은 그동안 교양교육컨설팅 등을 통해 교양기초교육의 확산에 기여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교양교육전문가들의 장기간의 합의를 통해 제시한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 참조. [http://www.konige.kr//sub02\\_08.php](http://www.konige.kr//sub02_08.php)

8)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보통 ‘교양교육’이라 통칭되던 용어를 ‘교양기초교육’이라고 구체화시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넓게 ‘교양교육’이라 부르는 교육에는 목표가 다른 두 영역, 즉 ‘교양영역’과 ‘기초영역’이 복합되어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두 영역에 대한 설명은 3.1.3을 참조할 것.

육(General Education)이 두 지향이 중첩되는 현대 교양교육의 맥락도 반영

- 자유교육의 이념에 따르면 교양교육은 능동적, 주체적, 자율적인 인격을 갖춘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그 자체로 본래적 가치를 갖는 품성과 자기목적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하기에 특정 목적에 수단으로서 봉사하게 되는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은 교양교육의 영역이 아님

- 일반교육은 전문성을 갖춘 직업인이기에 앞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전인적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향유하며, 공동체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인식하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해야 함

- 이처럼 교양교육의 두 이념인 자유교육과 일반교육의 두 관점 중 어느 쪽에 기대어 보더라도 인문교육이 교양교육의 핵심임

## ■ 교양교육의 목표

○ 교양교육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 목표에 비추어 보아도 인문교육의 교양교육의 중심에 자리해야 함

- <표준모델>은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를 다음과 같이 6개로 정리함

- 1) 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 2) 비판적 사고능력 및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 3) 인간과 세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 4) 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 5) 공동체의식 및 시민정신 함양
- 6) 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 이상의 목표들은 모두 인문교육과 본질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므로 교양교육의 보편적 목표를 제대로 추구할 경우 그 교육은 필연적으로 인문교육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

## (2) 교양교육에서 인문교육의 현황

○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교육은 교양교육의 목표와 영역에 이미 포섭되어 있어서, 교양교육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 정상화될 경우, 그 중핵의 위치에 자리 잡아야 마땅함.

- 그렇다면 “현재 한국대학의 교양교육에서 인문교육은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자리잡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 목표와 교과목이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하겠음

- 교육에서는 목표가 먼저 설정되면 이를 구현할 교육과정이 구성되고 구체적인 교과목들이 그 과정에 따라 개설되므로 목표에 반영되지 못한 내용은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에 반영되기 어려움. 따라서 교육목표에서부터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분석은 의미 없기에 교육목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

- 다음으로 실제 교육은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문교육의 실제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교과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함

- 현재 한국대학의 교양교육에 인문교육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9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전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된 ‘대학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sup>9)</sup>를 활용할 것임

- 이 연구는 일반대의 경우, 국내 총 198개 일반대학(대학교 186개, 교육대학 10개, 방송대 1개, 경찰대 1개) 중 총 116개 대학(요람 제출 74, 설문지 제출 87, 중복 제출 45), 전문대의 경우 국내 136개 전문대학 중 88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지역별로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조사에 포함되었음.

- 지면 관계상 자세한 조사 결과는 생략하고 분석의 결과만을 제시하겠음.

## ■ 교양교육의 목적/목표 키워드 분석 결과

○ 키워드 중 인문교육의 본연적 내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인격, 도덕, 리더십’과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임

- ‘인격, 도덕, 리더십’은 빈도수가 122, 빈도비율 24.5%로 가장 많으며, 인성교육이 교육 목표에서는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반해 ‘지성, 교양, 인문, 감수성’은 빈도수 62, 빈도비율 12.5%에 불과하여 인성교육을 제외한 인문교육의 다른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현실적으로 실용성과 더 긴밀하게 연결된 키워드의 비중이 높음

- ‘창의 융합, 미래사회, 문제 해결’이 빈도수 118, 빈도비율 23.6%로 높은 편이며 ‘기본, 소통능력, 핵심역량’의 빈도수는 65, 빈도비율은 13.0%임

- 교양교육과 관련 없지만 실용성과 관련된 ‘진로, 직업, 전문성’은 빈도수 16, 빈도비율 3.2%이며, 키워드 자체로는 인문교육과 긴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인 외

9) 윤승준 외,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19.

국어 교육에 집중되고 있는 ‘국제화, 다문화’도 빈도수 46, 빈도비율 9.2%임

- ‘봉사, 공동체, 민주시민, 국가’도 주제 자체는 기초사회과학을 통한 인문교육이 가능한 주제이나 실제로는 실용학문이나 체험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용성에 집중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다는 명분 하에 인문교육 본연의 목표와 관련된 키워드의 빈도수는 40%가 채 되지 않으며, 실용성이 강한 키워드가 약 40%, 나머지 20%는 인문교육 관점에서 교육될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실용성 중심으로 교육되고 있는 키워드임이 드러남.

- 교육 목표 차원에서도 교양교육에 인문교육이 정상적인 수준만큼 반영되지 않음을 볼 수 있음

#### ■ 교양 교과목 분석 결과

○ 교양필수 교과목의 경우 인문교육 관련 교과목의 비중이 크지 않고 인문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역도 실제 내용은 실용 교육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음

- 교양필수 교과목으로 가장 많이 개설되는 영역은 외국어와 의사소통 영역의 교과목인데 이 교과목들은 운영에 따라서는 인문교육과 본질적 연관을 맺을 수 있는데 실제로는 외국어의 경우 대부분 취업을 겨냥한 실용 외국어 교육, 의사소통영역도 실용적 글쓰기나 말하기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문교육 교과목들로 보기 어려움. 최근 역량기본교육이 이런 경향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도 사실임.

- 그 다음 순위인 인성 및 리더십 영역과 역사·철학·종교 영역은 인문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도 역사·철학·종교이 4순위에 오른 것은 조사대상 대학 가운데 교시교과목으로 자신의 종교관련 과목을 필수화시킨 특정 종교 계열의 대학이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함<sup>10)</sup>

- 최근 SW 교육이 중요시되면서 IT·컴퓨터 영역의 교과목이 교양필수로 중시되고 있고, 교양교과목으로 부적절한 진로, 취창업 영역이 6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 인문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영역인 인성 및 리더십, 역사·철학·종교, 문학·예술 영역의 개설 비율은 24.33%에 불과하며 여기에 기초사회과학과 관련된 정치학·경제학, 사회학·문화학·심리학 영역, 그리고 기초자연과학과 관련된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영역까지를 합쳐서 인문교육 관련 영역을 넓게 잡아도 개설 비율이 34.02%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문교육의 비중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음

10) 가톨릭대학교와 신학대학교 등 특정 종교 계열의 대학이 조사대상 87개교 가운데 15개(17.24%)에 이르고 있어 교양필수 교과목의 우선 순위를 해석할 때에는 이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 교양 이수학점의 절반 정도를 필수로 이수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교양교육에서 인문교육 관련 교과목의 부족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역량기반 교육을 강조하다 보니 교양필수 교과목이 기초교육을 위한 교과목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으며, 그 교과목들의 성격도 실용성을 강화하는 쪽에 치우쳐 있음

○ 교양 필수 선택 교과목에서는 통계상으로는 인문교육 관련 영역의 순위가 비율이 교양 필수보다는 높으나 이 점이 인문교육의 내실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함

- 인문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영역인 인성 및 리더십, 역사·철학·종교, 문학·예술 영역의 개설 비율은 31.26%이며 여기에 정치학·경제학, 사회학·문화학·심리학 영역, 그리고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환경 영역까지를 합치면 56.24%가 되어 교양필수 교과목에서 보다는 비율이 높음

- 그러나 절대 이수 학점이 교양 필수에 비해서는 부족하다는 점, 또한 현실적으로 사회과학 관련 영역에는 기초사회과학보다는 경영학, 행정학 등 실용학문의 교과목이 상당 비율 차지하며 자연과학 관련 영역에서도 전공기초 성격의 교과목이 상당수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중이 더 높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 2. 교양교육에서 인문교육 저해 요인: 대학 기본역량 진단<sup>11)</sup>

### (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요

#### ■ 2021 기본역량 진단의 내용

○ 교양교육의 본질적 의미, 본연적 목표에 비추어 보면 교양교육을 통해 인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현재 한국대학의 교양교육에서는 인문교육이 비중이 높지 않은 중요한 이유, 달리 말해 교양교육에서 인문교육을 저해하는 제도적 요인 중 분명한 하나는 바로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양교육 평가의 기준임

-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2021년에 시행했는데, 교양교육에 대해서는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이 진단요소로 규정되었음

- 구체적으로는 핵심역량 설정의 타당성, 핵심역량과 발전 계획 간 연계성, 핵심역량

11) 이하 내용은 박정하, 「핵심역량과 교양교육」, 『2020 국제 교양교육 포럼 자료집』, 한국교양기초교육원, 2020, 467~474쪽. (<http://www.konige.kr/files/sub0101/thekyowoo202012040948120.pdf>)에 의존함

제고를 위한 교양 교과목 편성·운영의 적절성, 환류를 통한 교양 교과목 개선·보완의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했음

- 핵심역량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설정한 것으로 고등교육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일반적 역량’이라고 정의하면서 몇 가지 예를 보여주었음

- 핵심역량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대학의 특성화 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된 기초학문을 통한 인간, 사회, 자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등도 포함하여 기술 가 능함’이라는 단서를 붙였음

○ 현재 제시된 내용은 교육부가 원래 제시했던 시안에 대해 한국의 교양교육학계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건의하여 일정 정도 수정이 이루어진 것임

- 교양교육학계에서는 교양교육을 오로지 핵심역량 함양 교육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교양교육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런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전국 각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은 심각하게 왜곡될 것으로 인식하였음

- 교양교육의 본령이라고 할 심화교양교육을 위한 기초학문 교과목은 교양교육과정에서 더 축소되고, 교양교육에서는 핵심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오해가 만연해질 것이며, 특정 교과목과 핵심역량을 일대일로 무리하게 연결시키는 비 교육적 접근이 횡행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음

- 그래서 교양교육학계는 이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시하였는데, 수정안의 핵심은 상위의 진단 요소부터 ‘핵심역량 및 기초학문능력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체제 구축·운영’으로 고치 고 그에 맞추어 하위 내용들에 대한 기술을 바꾸자는 것이었음

- 이는 교육부가 핵심역량 자체를 삭제하는 안은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현실 적 판단 하에 핵심역량 만이 아닌 기초학문 교육이 교양교육의 중심임을 공식화시키기 위한 제안이었음.

- 교육부는 이에 대해 상위 진단 요소는 수정하지 않고 핵심역량의 구체적 내용이 기초학문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정도의 단서를 붙이는 선에서 건의를 받아들였음. 이는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였지만 일단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 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자위했던 것이 교양교육학계의 전반적 분위기였음.

○ 그러나 이 평가 체제가 이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임

- 이미 사업이 종료된 ACE사업(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현재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과 마찬가지로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가 부족했고 그에 따 라 평가위원의 교양교육 전문성이 부족하긴 했지만 사업 목적에서 교양교육 개선 및

활성화를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이를 위해 교양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구조 개편을 진행하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대학들이 교양교육을 강조하면서 전공교육과의 균형을 회복하여 교양교육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상당정도 기여하였음

- 교양교육이 전공교육과 동등한 교육 영역이라는 인식의 확립만이 아니라 교양교육 전담 기관 설립 및 독립성 강화를 통해 교양교육의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공헌하였음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ACE사업이 성취한 내용을 유지하면서 교양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에 공헌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긍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움. 교양교육의 목표를 핵심역량 제고로 설정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기준은 많은 문제를 초래하여 교양 교육 본연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문교육이 교양교육에서 구현되는 것도 방해하고 있음

## (2) 대학 기본역량 진단의 문제점

○ 현재의 평가 방식은 교양교육의 평가하기에 최소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기에 평가로 인해 교양교육이 왜곡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문교육도 위축되고 있음

### ■문제점 1: 핵심역량 제고는 교양교육의 목표로 부적절

○ 핵심역량은 원래 직업교육의 개념이라서 교양교육의 전면적 목표로 삼기에는 부적합함<sup>12)</sup>

-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교양교육이 제고해야 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역량(competency)은 1970년 이래 주로 직업교육의 맥락에서 수용되어 논의된 개념임

- 이 맥락에서 역량 개념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은 업무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점과 수행을 통해 객관적으로 관찰, 측정될 수 있다는 점임

- 21세기 초부터 한국에서는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competency’를 아예 ‘직무능력’으로 번역하고 있음

- 국내 대다수 기업들도 역량을 기초역량(foundation competency 혹은 basic competency), 직무역량(job competency), 리더십역량(leadership competency)으로

12) competency로서의 핵심역량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박정하, 「역량개념 지도 그리기」, 『교양기초교육연구』 제2권 제1호, 단국대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1, pp57-61

나누어 접근함. 기초역량은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적절한 인재인지를 평가하는 직무적성검사에서 평가되는 역량이며, 직무역량은 입사 후 자기 직무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으로 수행평가 시스템을 통해 평가하여 구성원의 직무배치, 경력개발, 및 역량개발에 활용되고, 리더십 역량은 팀장 또는 임원 이상의 관리자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리더십 진단 시스템을 통해 평가되어 임원 선발 및 리더십 교육에 활용됨

○ 역량개념이 한국에서 교육에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데에는 OECD가 핵심역량(key competences)을 규정한 DeSeCo 프로젝트의 영향이 큼.<sup>13)</sup>

- 이를 통해 역량 개념이 작동하는 맥락이 직업교육만이 아니라 학교교육과 사회전반으로 확대되었음

- OECD의 핵심역량에 다양한 고려와 고민이 투영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OECD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또한 핵심역량이 개인과 사회의 '성공'이라는 결과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직업 교육에서 가진 특징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현재 핵심역량 정의에 포함된 '일반적 역량'이라는 규정도 이미 직업 교육 맥락에서 논의된 내용임.

- 일차적으로 역량은 특정한 맥락이나 직무에서의 성공적인 수행과 관련되지만 특정 직무나 역량에만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역량이 있다는 생각은 이미 20세기 후반에 형성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역량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된 바 있음

- 주로 기초역량과 리더십 역량에 이런 일반적 역량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었음

- 한국의 NCS에서도 의사소통능력 등 10개의 역량은 '직업기초능력'이란 이름으로 직종에 관계없이 필요한 일반적 능력으로 제시하고 있음

○ 한국대학에서 직업교육 맥락의 역량개념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대학들이 역량기반 교양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취업과 관련된 실용적인 교과목들을 교양교육 과정에 배치해왔다는 점에서 여실히 드러남

- 이런 의미의 역량은 당연히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가 될 수 없음. 앞서 언급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에서 교양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는 1)학문탐구를 위한 보편적 문해 능력 함양, 2)비판적 사고능력 및 합리적 의사소통능력 함양, 3)인간과 세

13)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France: OECD, 2005

계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정립, 4)융합적 사고 및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함양, 5)공동체의식 및 시민정신 함양, 6)심미적 공감 능력 함양 중 1), 2), 4)는 어느 정도 앞서 말한 역량과 연관 지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역량이란 개념으로 환원하기 어려움

■문제점 2: 핵심역량 제고를 교양교육의 목표로만 설정

○ 핵심역량은 교양, 전공, 비교과의 협업을 통해 배양할 수 있는데, 교양교육의 목표로만 설정한 것은 부적절함

- 교양교육과정은 핵심역량 제고, 전공교육과정은 전공능력 제고와 관련지어 평가했음

- 1학년 때 교양교육과정의 대부분을 이수하는 한국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만일 핵심역량이 대학 교육의 유의미한 목표라 하더라도 과연 1년 과정으로 배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인지 의문이 생김

- ACE사업 때는 핵심역량을 설정하더라도 그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교양, 전공, 비교과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하는지를 로드맵을 통해 제시해야 했으므로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서의 최소한의 합리성은 갖추고 있었음

- 물론 지금도 전공능력을 핵심역량과 관련지어 규정하고 전체적으로 역량기반교육의 구조를 구성하려는 대학들이 상당수 있으나 평가기준에만 따르면 꼭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결국 교양교육의 목표가 되는 핵심역량을 따로 설정하고 이를 1학년 교육에서 달성하겠다는 무리하고 불합리한 계획을 세우는 학교가 생기도록 방조하고 있음. 지금 기준에 따라서 핵심 역량을 교양교육의 진지한 목표로 삼는 대학이 있다면 아마도 교양 이수학점을 대폭 늘려서 교양교육을 2년 혹은 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리적일 것임

■문제점 3: 역량 제고를 교과목 수준에서만 확인하려고 함

○ 평가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역량과 교과목을 1:1로 매칭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왜곡 현상을 유도하고 있음

- 물론 “한 교과목에 2개 이상의 핵심역량이 연계된 경우에는 주된 핵심역량을 기준으로 1회 기재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서 교과목과 역량이 1:1로만 매칭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1:1 매칭을 해야 하므로 이로 인한 교육과정의 왜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DeSeCo 프로젝트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역량은 지식, 기능을 포함하면서 태도, 동기, 가치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개념이라서 역량 구성 요소들이 내적 구조를 이루며

총체적으로 작동하기에, 즉, 역량 발현 과정은 역동적인 복합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역량들을 하나씩 떼어내서 교육하는 접근법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음

- 또한 한 교과목이 오직 하나의 역량과 관계 맺는 경우도 대부분 가능하지 않으므로 역량과 교과목을 1:1로 대응시키는 것은 넌센스(nonsense)에 가까움

○ 1:1 대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역량 제고를 교과목 수준에서만 확인하려고 하는 지금의 접근은 부족함이 있음

- 역량은 교과과정 전체를 통해 달성되어야 할 목표이므로 교육과정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학습경험이 역량개발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함.

- 따라서 역량과 교과목 사이의 연계만이 아니라 교과목과 교과목 사이의 연계, 또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프로그램 사이의 연계가 파악되어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습 경험 전체가 고려되고 이를 통해 역량배양의 로드맵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작성지침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3)해결을 위한 제언

#### ■ 역량 개념의 재정의

○ ‘역량’ 개념을 넓게 써서 직업교육 영역의 함축을 약화시키는 것이 잠정적, 현실적 대안임

-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되어 대학에 막대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이 앞에서 본 것처럼 직업교육에서 유래한 역량 개념을 교양교육 평가의 중심에 놓고 있다 보니 한국대학에서 직업교육에 의한 교양교육의 식민화 현상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인문교육의 저해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

- 오늘날 직업교육을 중시하는 사회의 요구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에서 ‘핵심역량’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추방해 버릴 수 없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개념의 의미를 직업교육 차원을 넘어 폭넓게 확장하여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보조수단으로 주체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교양교육의 본령은 인간, 사회, 자연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이를 토대로 세계관, 인간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각 학문 영역의 기본지식을 조망하고 연계시키고 종합할 수 있는 시야와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이므로 기초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이 꼭 필요함. 이때 역량이란 말을 넓게 이해할 경우, 이를 규정하기에 따라서 본연적 목표에 가까워질 수도 있음

- 만일 교양교육의 목표를 앞서 언급한 <표준모델>에서 제시하는 목표에 최대한 가깝게 정의할 경우, 역량교육과 교양교육 본연의 목표가 거의 일치하게 되고, 실제로 그 목표를 이루려면 기초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게 됨

- 이미 언급한 누스바움의 접근이 좋은 사례가 됨. 비판적 사고, 세계시민적 소양, 서사적(공감적) 상상력이라는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에 해당하는 항목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에 대응해서 인문학에 대한 접근을 필수적인 교육 내용으로 제시했기 때문인데, 이는 핵심역량을 교양교육의 목표에 맞게 적절히 설정하면 교육과정도 기초학문 중심의 과정을 꾸릴 수 있음을 시사해 줌

○ 만일 대학이 스스로 설정한 핵심역량이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본연적 목표를 우선시하면서 역량 배양은 부가적 목표로 설정하면 될 것임.

- 기본 역량진단에서도 교양교육이 핵심역량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교양교육이 본연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핵심역량을 일정 정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되며 이는 역량 교육의 기본 성격에 비출 때 불가능하지 않음

- 우리는 역량 자체를 배울 수는 없으므로 기초학문을 배우면서 수업과정에서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원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학습경험을 구성하는 것이 일정 정도 가능함

○ 역량을 넓게 이해하자는 대안은 난감한 상황을 개별 대학 차원에서 모면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꾸민 것은 아니라 실제 한국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역량’이란 말의 의미에 기초한 것임

- 현재 한국 대학에서는 실제로 역량개념을 직업교육 맥락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어쩌면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과제의 성공적 수행이나 측정가능성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OECD가 표면적으로는 역량을 직업교육 맥락보다는 넓고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competency’와는 전혀 다른 배경과 의도에서 나온 용어들이 ‘역량’이란 번역어로 통칭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sup>14)</sup>

-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1992년 고등교육위원회(Higher Education Council)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들이 대학교육을 통하여 습득해야 할 역량을 ‘일반적 자질(generic attributes)’이라 규정하고 대학들이 졸업생들로 하여금 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고, 그 결과 대학들이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graduate attributes)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교육하고 있음. 이 일반적

14) attribute와 capabilities로서의 핵심역량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할 것. 박정하, 「역량개념 지도 그리기」, 『교양기초교육연구』 제2권 제1호, 단국대 교양기초교육연구소, 2021, pp61-75

자질에는 직업교육의 맥락으로 환원될 수 없는 자질들(예를 들면 학문적 수월성, 세계 시민성, 윤리적, 사회적 책임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역량'으로 통칭되고 내용 중에는 GDP 중심의 경제성장 모델을 비판하면서 HDI(Human Development Index)를 사회 발전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인간계발(Human Development) 모델에서 비롯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생명, 건강, 육체적 온전성 및 정치적 자유, 정치적 참여, 교육 등의 다양한 핵심 분야에서 개인이 지니는 기회 또는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회 발전 정도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앞서 언급한 누스바움과 함께 경제학자 센(Sen)도 여기에 동조하는 대표적인 이론가에 포함됨

- 이들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능성과 능력을 지칭하기 위해 'capabilities'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이 또한 '역량'이란 번역에 포함된 또 다른 갈래의 흐름이다.

- 이처럼 다양한 배경에서 온 다양한 내용이 현재 한국 대학에서 사용되는 '역량'이란 말 속에 수렴되어 있고, 이점이 역량의 개념적 혼란을 배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보면 현재의 우리 용어법으로는 교양교육의 본연적 목표도 역량이란 말에 담지 못할 상황이 아니므로 이 개념을 교양교육의 목표를 구체화시키는 보조수단으로 선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럴 경우 인문교육의 내용들이 상당 정도 핵심역량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임

- 단, 이 경우 역량 개념을 더 넓게 쓰면서 역량을 측정, 평가할 때에는 과제의 성공적 수행과 객관적 측정 가능성이라는 원래 직업교육 맥락의 역량에 대한 측정, 평가 방식을 고집할 경우에는 측정대상과 측정방법의 심각할 불일치가 생기므로 측정 및 평가방식에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함.

## ■ 평가의 기획 및 시행에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 참여

○ 더 근본적 대안은 교양교육 전문가가 교양교육 평가에서 주체가 되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임

- 일반적으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짐. (1)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 (2)평가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 개선을 유인하는 것.

- 그 동안 시행되어 온 국가 단위 사업들은 (1)보다는 (2)를 일정 정도 수행했고, 그 결과 교양교육의 양적 안정화에 기여했는데, 교양교육도 전공교육과 동등한 대학교육의 한 영역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교양교육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 상당정도 기여했기 때문임

- 하지만 (2)에서도 질적 개선은 충분히 유인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1)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는데, 평가 내용이나 기준에서의 전문성 결여가 일차적 이유이고,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을 기획과 시행의 주체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 이유이다.

- (1)이 충족되어야 (2)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1)을 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며, (1)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갖춘 주체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바람직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므로 무엇보다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이 교양교육 평가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다.

- 다행히도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1)을 교양교육컨설팅이란 형태로 진행하면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이고, 그 바탕이 되는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은 한국교양교육학회란 형태로 상당 정도 조직화되어 있으므로 이런 국가 단위의 교양교육 평가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 및 한국교양교육학회와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전면적으로 이 평가에 투입되고, 컨설팅 사업을 통해 축적된 성과들이 이 평가에 반영되면 평가의 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수 있음

○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위의 평가를 보완하여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차원에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축적된 전문적 역량을 토대로 교양교육인증제의 시행도 적극 검토해 볼 시점임

- 평가의 중복을 막아서 대학에 만연한 평가의 피로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 평가와 교양교육인증제가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단위 평가는 교양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교양교육 정상화의 최소 요건을 기준으로 설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 각 대학이 보완해야 할 점을 부각해야 함

- 반면에 교양교육인증제는 정상화의 최소요건을 충족한 대학 중에 교양교육의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려는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우수대학 인증제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를 위해 개선의 방향, 수준, 방법을 인증요건으로 구체적,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면 됨

- 이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 시행하고 있는 모니터링과 그에 기초한 우수개선대학 선정과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 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판단됨

- 이 두 제도가 보완을 이루면 평가가 교양교육의 발전에 상당히 이바지하면서 교양교육의 본령인 인문교육의 활성화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측함

### **3. 교양교육에서 인문교육 강화 요인: 지원기관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위상 안정화**

(1) 활동 현황

○ 대학 교양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2011년 8월 설립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개원이래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종래 대학사회에서 소홀히 취급되어 온 교양교육을 새롭게 조명하고 각 대학으로 하여금 교양교육을 구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옴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기초교양교육 강화사업의 다양한 세부사업 운영을 통해 개별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학과 교수를 지원하며, 범대학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역할은 크게 1) 우리 사회 구성원 특히 학생과 교수를 포함한 대학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교양교육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대학 교양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것, 2) 바람직한 교양교육과정 모형 혹은 대안을 제시하고, 각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돕고, 지원하는 것, 3) 교양교육 관련 연구를 위촉하고 지원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이론적·실천적(방법론) 토대를 구축하는 것, 4) 교수자와 교수활동 지원으로 요약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국내 대학 교양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양교육 정책 연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법 개발, 교과목 개발, 교강사 워크숍, 정보 공유를 위한 e-저널 발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이런 활동을 통해 교양교육의 중핵에 자리하고 있는 인문교육의 진흥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왔음.

#### ■ 세부사업 1 : 교양교육 컨설팅

○ 한국대학의 교양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12년부터 교양교육 컨설팅을 통해서 대학 내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양교육의 문제를 진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고, 교양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조언 및 숙의하는 자문활동으로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에 주력해옴

- 대학 교양교육 컨설팅은 1) 교육과정 개선, 2) 교육내용 심화, 3) 교육역량 제고, 4) 교육활동 지원 등 대학 교양교육이 당면한 내적·외적 과제들을 대학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문 활동임

- 교양교육 컨설팅은 교양교육 운영과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일반대의 경우 4개 영역, 10개 소영역, 32개 진단항목을 설정하였고, 전문대의 경우 5개 영역, 10개 소영역, 22개 진단항목을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매년 컨설팅 요구도와 수요를 반영하여 진단항목을 개선해오고 있음

- 진단영역 중 특히, 2영역(교양교육 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 3영역(교과목 충실도

점검)을 통해 교양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교과목들이 기초학문을 중심으로 해당 학문의 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음

○ 교양교육 컨설팅 사업은 교양교육에 대한 전문가 및 인프라가 부족한 대학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객관적인 진단과 조언을 통해 교양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자 하는 대학들의 지속적인 컨설팅 요청으로 인해 새로운 모델이 도입되고 전문대까지 확대되어 운영됨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컨설팅이 1회성의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질 관리를 위한 환류체제가 구축되어서 교양교육 질적 개선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대학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대외적 지원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컨설팅 모델이 2018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됨

- 특히, 사후 모니터링 신청 대학 중 교양교육의 변화와 발전의 노력이 뛰어난 대학들을 격려하는 우수 개선대학 선정을 같이 진행함으로써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알리는 활동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음.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컨설팅 환류체제 구축은 각 대학의 인문학 교육이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훼손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 ‘대학 교양기초교육 표준모델’의 ‘교양교과목 적정성 요건’의 적극적 기준과 소극적 기준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대학이 개설한 모든 교과목이 교양교과목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심화 컨설팅” 모델이 2017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됨

- 표준모델의 적극적 기준인 학술적 대표성, 다시 말해 교양 교과목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전 영역에서 공인된 학술적 가치를 갖는 과목이어야 하며 학문간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동시대 삶의 방식으로 수용토록 개설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이에 반해 비학술적이고 연성화된 인문학 교과목이 각 대학에서 운영되는 상황에 심화컨설팅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실 있는 인문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 세부사업 2 : 교·강사 연수 사업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2012년부터 보직교수 및 교직원 연수, 교·강사 연수, 기관장 연수, 교직원 연수 등 각각의 대상에 맞춰 4종의 연수를 시행하여 왔고 2020년도

까지 총 6,777명이 연수에 참여하였음

○ 연수 사업의 취지는 교양교육 전문가들과 신입 보직자, 교양교육 담당 교·강사, 교양교육 관계자들이 교양교육 운영 전반에 걸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면서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교양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있음

- 교양교육 관계자들이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을 만나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고 연수 행사에 참여하여 서로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여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하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대학별 교양기초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양기초교육과정 운영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것과 교양기초교육 담당 보직교수 교체로 인한 행정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대학 내 교양기초교육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있음

○ 지금까지 진행된 보직 교수, 기관장 연수, 교·강사 연수 프로그램을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글쓰기 교육, 교양영어 교육, e-러닝 교육 등 교과목 운영방안에서부터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방안, 융·복합교육 운영방안, 외국 대학 교양교육의 사례 등 교양교육 전반의 운영과 관련하여 긴요하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편성되었음

- 또한, 교양교육 과정 편성의 원칙 문제, 바람직한 교양교육기관의 조직체계, 교양교육과 과학기술교육, 의사소통교육-한국어 글쓰기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과 컴퓨팅 사고력(Computational Thinking) 등 시기별로 교양교육과 관련 된 주요 이슈를 다룸으로써 교양교육 관련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음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대면 연수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는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를 위해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였으며, 2021년에는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교양기초교육 교·강사 온라인 교육 플랫폼(edukonige.kr)”을 구축하고 교양교육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High Impact Practice) 공유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교양교육 연수 사업은 인문학 관련 주제를 직접 다루거나, 교수법을 공유하거나 혹은 주요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면서 인문학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역량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

### ■ 세부사업 3: 교양교육 연구지원 사업

○ 교양교육 연구지원 사업은 교양교육의 이론적 토대는 물론 교육과정 및 교과목 설계에서 교양교육의 성과 평가 및 정책 연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연구지원 사업은 크게 5개 주제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과정 연구, 교과목 개발 연구, 교수-학습 관련 연구, 성과평가 관련 연구, 교양교육 정책 관련 연구 등임

- 이러한 사업들은 교양교육 전반에 관한 주제들을 망라하고 있으며 연구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양교육컨설팅과 성과확산사업에도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설립 초기인 2010년대 초 국내 대학의 평균적인 교양교육 현실은 지금에 비하면 훨씬 더 열악하고 왜곡된 형태를 띠고 있었기에 많은 대학들이 참고하고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음. 따라서 설립 초기의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연구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목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음. 이러한 교과목 개발은 인문학 교육에서 어떠한 교육과 내용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대학 학부교육의 방향 설정부터 대학 교육 전반에 걸친 어젠다 설정에 이르기까지 교양교육 정책 관련 연구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

- 현재 한국 대학에서 교양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초연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하여 앞으로 몇 년 안에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 앞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학부교육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야 할지, 그리고 교양교육이 탄탄한 구조를 정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정책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2) 제언

### ■ 인문학법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

○ 한국교양기초교육원 그동안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인문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양교육을 지원해 왔으므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인력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교양 교육 나아가 인문교육의 진흥이 가속화될 것이기에 이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2011년에 출범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그동안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을 위하여 다대한 성과를 이루어왔음

- 불모지와 같았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 현황을 조사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 대학 교양교육 현황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개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여 각 대학의 교양교육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 또한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한 교수법 연수를 통하여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교양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왔으며, 국제교양교육포럼을 개최하여 교양교육에 대한 세계적인 동향을 흡수하고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음

- 특히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서 매년 발간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는 각 대학의 교양교육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그동안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에 관한 한 National Center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그 활동의 방향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방향과 일치해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그 효과를 각 대학이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며 인문교육의 진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이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 교육이 정상화되고 진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4. 맺는 말: 기타 제안**

○ 현행 교양교육 평가 기준 및 시행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원기관인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위상을 법적으로 공고화해야 한다는 제안 외에 교양교육에서 인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타 제안을 세 가지 제시함.

1) 대학의 자원(인력, 예산, 학점)을 전공과 교양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지

를 교내 합의를 통해 정하여 명문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교양이 전공과 동등한 교육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배분의 원칙이 없다면 학교 운영진이나 다수를 차지하는 전공 교수들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교양교육에 학교 자원이 배분되고 있음

- 강좌 수나 수강 학생 수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런 원칙을 세우기 어렵다면 한 학과에 투입되는 예산 정도라도 교양교육에 투입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아예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임.

- 관리기관인 교육부는 원칙의 내용에 간섭해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배분 원칙의 유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교양교육 평가 항목에 이런 원칙의 유무를 반영하는 것도 한 방법임.

2)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교과목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강의할 교수자의 채용이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지역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같은 지역 복수의 대학들이 교수자를 공유하는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일종의 국가교수제와 같은 교수자 지원제도를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국가교수제는 연구재단이나 지역거점대학에 소속하면서 그 지역 복수의 대학에서 인문학 관련 교과목을 강의하고 연구비에 대응하는 연봉을 받는 개념의 제도이며, 강의하는 대학에서 일종의 매칭펀드 개념으로 그 연봉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함.

3) 현재 일반대학에서는 교양교육 전담교수가 전공학과가 아닌 교양학부나 교양교육원 등에 소속될 수 있으나 전문대학은 학과 소속 교수만이 교수총원률에서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교양교육 전담기관을 운영하기 어렵고, 교양교육 전담교수를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이런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인문학 전공 교수자가 전문대학의 교양교육 전담 교수로 임용되어 전문대 교양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임.

<정책 제안 요약>

1.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시행된 핵심역량 중심 교양교육 평가가 교양교육의 본령을 이루는 인문교육을 위축시키고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양교육 전문가 집단이 평가제도의 기획 및 시행에 핵심주체로 참여해야 함
2. 교양교육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인문교육 진흥에 기여해 온 한국교양기초교육원에 대한 재정 및 인력지원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인문학법 제18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해야 함
3. 대학의 교내 자원(인력, 예산, 학점)을 전공과 교양에 어떤 원칙으로 배분할지를 합의를 통해 정하여 명문화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리하고 유도해야 함.
4. 인문학을 비롯한 기초학문 교과목의 교수자 채용이나 확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지역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할 제도로써 국가교수제를 시행해야 함
5. 전문대학 교수충원을 산정 방식을 수정하여 인문학 교수자가 교양교육 전담기관에 소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통일교육의 인문학적 관점과 방향 -

김성민(건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통일인문학연구단장)

## 차례

- 001 들어가며. 평화통일교육의 현재
- 002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출발점 "통일인문학"
- 003 DMZ 접경지역 활용. 평화통일 교육 사례
- 004 인문학적 평화통일교육의 비전



1

통일인문학

## 들어가며 : 평화통일교육의 현재

통일인문학





### 1) 현재, 우리는

 남북 대립과 분단 체제에 대한 의혹	 북한 체제에 대해 내면화된 혐오와 적대감
 남북의 경제적 격차와 통일비용에 대한 두려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고민할 여유가 부족한 경쟁 사회
 남북 주민의 가치관 및 생활문화의 큰 이질감	 통일 이후의 사회변화와 혼란상에 대한 공포



### 1) 현재, 우리는

▶ 변화의 가능성은 없는가? 있다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 2021년 통일이시초사(통일교육원 실시)

57.8%	통일 필요하다	 이런 결과의 배경은 통일이 차기 세대의 일이 아니거나 또는 나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못한 일·또한 규정되었기 때문 ↓ '개인적 삶에서의 통일의 의미 약화' .....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주는 고통과 아픔을 적시하고 통일에 대한 미래적 비전을 공유하게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는 경험들이 주어져야 할 것. 통일공감력 & 평화감수성
46%	정치공론 가능하다면 통일 필요하다	
58.6%	분단과 통일은 내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기존 통일론(통일교육)의 한계

▶ 통일에 대한 표면적, 당위적, 낭만적 이해 극복의 필요성



**문제점**

- 통일을 정치경제적인 통합의 문제로만 사고하는 경향
- 통일을 하나의 결과로서만 사고하는 경향
- 시민들의 고통과 아픔, 남북의 적대성에 대한 고민 부족
- 단순히 같은 민족이라는 정서에 근거하여 같은 나라였다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





002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출발점 '통일인문학' ●●●●●  
 2-1) '통일인문학'의 기본 관점

인문학적 통일론의 출발점 : 본단의 고통과 그것의 극복

▶ **통일의 필요성** : 전쟁과 부인이 낳은 우리들의 고통과 아픔, 상처와 적대심 등의 극복



서로에 대한 미움과 적대심 그리고 낯설



전쟁의 고통과 아산가족의 아픔의 치유



자유와 연정의 계곡 민족 차분김의 훼손



천문4력의 본(바람) 상심학의 계인

▶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고통과 아픔의 치유, 남북주민의 현재보다 원만하고 행복한 인간다운 삶

002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출발점 '통일인문학' ●●●●●  
 2-1) '통일인문학'의 기본 관점

'통일인문학'의 의미



- 인문학의 비관성과 실천성으로부터 출발
- 인간다운 삶의 의미와 가치, 이례적 관심을 중시



▶ 인간의 가치, 정서, 생활문화 등 구체적인 삶의 배경 속에서 생성되는 통일담론, 통일인문학



2-1) '통일인문학'의 기본 관점

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 : '통일인문학'



2-2) '소통'과 통일

'소통'의 의미



→ '소통'이란, 서로 다른 두 개체 사이의 '다름'과 '막힘'을 풀고 '말'을 교환하는 '대화의 과정'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의 관계는 '통일 지향의 관계'라는  
특수성에 근거할 때만 이해할 수 있음

▶ 통일 지향의 관계성 = 특수한 관계로서 삼과 북

- ① 오랜 기간 갈라 뉘어져 하나의 국가를 형성해온 역사적 국가(제국)
- ② 같은 역사의 전통 문화에 갖는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
- ③ 분단의 상처와 적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남북관계의 특수성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최종적지를 만들어 내야 할 필요성  
 ① 차이를 존중하는 소통 - 가르치고 배우는 소통 - '공통규칙을 생산하는 소통'

남북관계의 특수성



남북기본합의서(남북의 상호 체제 인정)-615공동선언(공동성명 창기)-10.4선언 (공동변명의 모색)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남북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협력 기동)

### 남북의 소통전략



가브리엘라 고잔(1984- )

"나는 자기만의 또는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시립과의 대화를 대하려고 부르짖는다"



▶ 남북의 소통 전략 : 가르치고 배우는 특수한 관계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1

타자의 타자성 (otherness of other)을 배우고 가르치는 의사소통

2

심호제어의 움직임이 직동하는 소통

3

신민족 전체를 함께(communit) 품어주기니 나누어(share) 통일한반도의 미래규칙과 가치를 만들어가는 소통

### 역사적 트라우마

트라우마 - 역사적 트라우마 - 한반도의 트라우마

트라우마

: 트라우마의 개념적 정의는 정신적 상처  
: 트라우마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함

역사적 트라우마

: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을 공유한 집단이 가진 트라우마

코리아인 역사적 트라우마

: 식민 이산 분단 (전쟁등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 집단적 트라우마  
: 역사적 트라우마는 세대를 거쳐서 전승되며 사라지지 않음



"민족사에는 트라우마적 사건이나 정체성의 기원이 되는 일련의 사건이 있다. 이 기원은 이후 가장 트라우마적인 사건에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용어로 혹은 애매오호한 용어로 신성화되며 전형적으로 분리된 유산을 만든다"

Dominick LaCapra, 『자유와 역사학으로: 라가프라의 정신분석학적 역사학』

한중일은 '중족'이라는 면에서 거의 또는 완전히 동질적인 인구로 구성된 역사적 국가의 극히 희귀한 사례이다

(Eric John Hobsbawm, 『1790년 이후의 민족과 민족주의』)



민족 = 국가  
민족 ≠ 국가 (같은국가, 분단국가)  
일제식민지의 분단

▶ 민족적 리비도의 좌절

▶ 식민·이산·분단의 트라우마



2-3 '자유와 통일'

코리아인의 역사적 트라우마



**식민 트라우마**

인민족의 집단적 육체를  
희생시킨 식민의 상처

↳ 동족상잔의 비극  
식민과 통치국의 국가  
형성의 과정




2-3 '자유와 통일'

코리아인의 역사적 트라우마



**이산 트라우마**

일제의 패국주의적 일방정책과  
식민의 정책적 악용, 다른 나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의  
심리적 상처

↳ 전 세계 3억 8천만 명의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2-3 '자유와 통일'

▶ 코리아인 디아스포라  
(Korean Diaspo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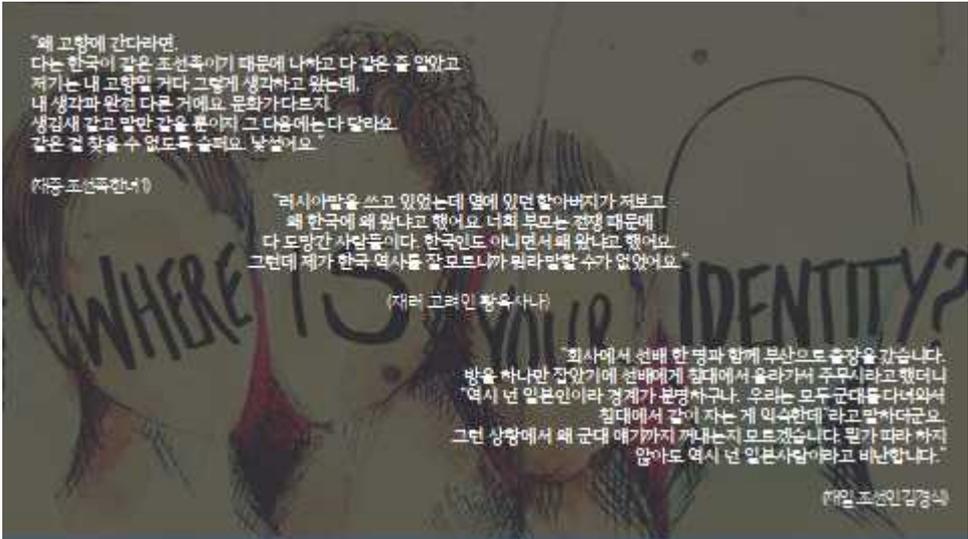
- 개념 : 모국인 한반도를 떠나 타민족이 주류인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한민족원족 집단'
  - 특성 : 일제강점기의 식민주의적 민족차별로 인한 (정서의 타당+강제수탈에 따른 코리아인들의 해외이주)
  - 현황 : 200만~250만 명으로 추산 대표국가는 동북아시아  
중국(중국 조선족 약 200만 명)  
몽골(몽골인(재민) 고려인) 약 50만 명  
일본(재일 조선인) 약 80만 명
- 최근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의 한국 사회 아주 증가



▶ 코리아인 디아스포라의 상처



- 1) 거주국에서의 차별과 배제
- 2) 한국 이주 이후 같은 민족이지만 위계화된 시선 아래의 차별과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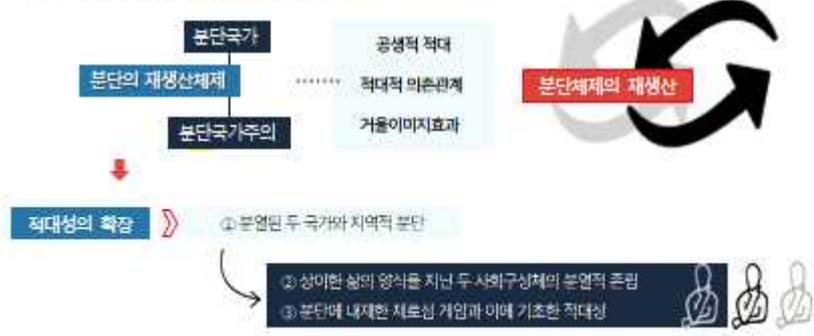


002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출발점 '통일인문학' 2-3) '자유와 통일'

코리아의 역사적 트라우마

002 새로운 평화통일교육의 출발점 '통일인문학' 2-3) '자유와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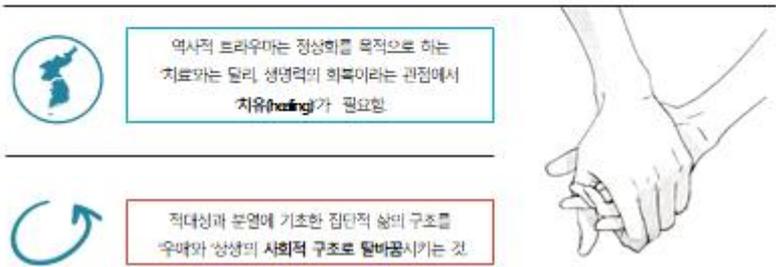
■ 분단의 재생산체제와 상호 적대성의 확장



분단폭력: "폭력의 삼각형(violence triangle)"



역사적 트라우마의 극복



역사적 트라우마의 치유방향



2-4 통합과 통일

■ 사람의 분단



세드 정치사승주강

"통일 통일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문화적 통상'이며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

▶▶▶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란 합치라도  
사회적 갈등과 편입을 양산하는 경제적이지 않은 상황 양산

DX 통일/여권



남한



한조선민족의 민족을  
지배하는 두 개의 분단국가



각각의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

2-4 통합과 통일

통일과 통합



통합은 *unite* - 통-이라는 말로  
나눠지기 이전의 하나 또는  
한 중기로 다시 합쳐진다는 의미로 이해  
※ 이집트 프라피고 통일상의 의미

동질성을 강조할 때  
타자를 배제하거나 동일화시키려는  
일방적 관점이 생기됨  
※ 대만(미국중립주의) - 유엔(중국중립주의)

통합의 의미를 재생산  
※ NCS 특 고교는 디아스포라 현상이 많은  
생물연초는 통상 가치 중의 통합에 주목

2-4 통합과 통일

민족공통성으로서의 통합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  
(family resemblance)  
+  
과정으로서의 통일



민족공통성  
(national commonality)

여러 집단이나 개체가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속성이나 고집값이 아님

1 'national community'  
↓  
'national commonality'

▶ community: 특정한 지역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속성  
▶ commonality: 둘 이상의 개체가 서로 마주쳐서 만나거나 협력할 때는  
common에 의해 만들어지는 속성

2 미래기획적 사유

한민족의 과거 원형을 찾는 것이 아님  
서로 다른 거주국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코리아인들이 각자 만들었던 공통성을 사유하고  
이를 미래기획적으로 구성하는 것



2-4 통합과 통일

민족공통성으로서의 통합의 의미

현대의 국제관계를 우려한 국제정치전문가	한민족의 과거 동양을 잊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거주국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고대인 전체가 역사 속에서 만들어 낸 공통성을 사유하고, 이를 미래기회적으로 구성하는 것
	연대, 공감, 우애를 통해서 재구성되는 '민족은' 통일성으로서의 민족이 아니라, 차이들이 만들어내는 공통성으로서 민족
	남과 북, 그리고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의 달록과 차이들이 만든 공통성  '민족공통성 = 통일안정기'



2-4 통합과 통일

민족공통성으로서의 통합의 의미

소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의기인 해금을 북한에서 현대적으로 개량한 의기. 기존 2현에서 4현으로 현의 수를 늘려 더욱 다양한 음을 연주할 수 있음.</li> <li>• 지판 추가, 활을 개량하였기 때문에 서양의 바이올린 연주법을 적용 가능.</li> <li>• 전통적인 해금의 소리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연주법이 가능하도록 개량.</li> <li>• 해금과는 다른 의기로 볼 수 있으나 그 음은 남북한 모두의 전통적인 형서와 어울림.</li> </ul>	



2-4 통합과 통일

민족공통성으로서의 통합의 의미

고려아리랑 : 천산의 디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극장 : 1932년 창단 이후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연극과 음악을 공연해온 고려연의 대표 문화 공간.</li> <li>• 발타마리 : 강제이주된 고려연의 후손인 아버지와 러시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 고려극장의 순회극단인 아리랑 기구단의 대표 디바.</li> <li>• 다큐멘터리 영화 '고려아리랑 : 천산의 디바'는 고려극장의 대표 디바 이항덕과 발타마리를 중심으로 러시아 및 CIS에서 살아가는 고려연의 아픔과 전통을 이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li> </ul>	

2-5 통일인문학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 ▶▶ **인간다움의 회복이라는  
인문정신에 기반한 통일교육** → 민족적 당위 경제적 이익만을 강조하지 않는 통일교육  
통일한반도의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통일교육
- ▶▶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는  
박상에 기초한 통일교육** → 제도적 차원만을 강조하지 않는 통일교육  
서로 다른 정치·경제·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만남을 가르치는 교육
- ▶▶ **북한의 신체통일 통일인문정신으로  
변화시키는 통일교육** → 적대적 대결의식 비교우위의 의식에서 벗어난 통일교육  
우애와 협력의 체험을 강조하는 통일교육
- ▶▶ **소통·차유·통합의  
인문정신 통일교육** → 낯선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소통'  
상처를 보듬어 주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차유  
공동의 질서를 함께 창출하여 변명해가는 통합

2-5 통일인문학에 기반한 평화통일교육

■ 통일인문학의 평화통일교육

- ▶ **당위적 통일교육** → **창의적 통일교육**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기에 통일해야 한다는 식의  
거기 의규적 교육 → 학생들 스스로 상상력을 동원하여 시집의 통일을 설계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 ▶ **안보적 통일교육** → **평화적 통일교육**  
북의 도전성을 부각시키고 적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대결의식을 고취시키는 통일교육 → 남과 북의 가치 정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분단을 민족 공통의 고통이지 이롭으로 느끼는 통일교육
- ▶ **인지적 통일교육** → **감성적 통일교육**  
통일을 국가 또는 체제의 통일이 아닌 관점에서  
정서 정서 관계로만 접근하는 통일교육 → 내기 보고 느낌으로써 통일을 나의 일상적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통일교육





## DMZ와 접경지역의 개념 및 개요

- 행정적 의미의 DMZ / 생활문화권역으로 구분한 접경지역



### 행정적 의미의 DMZ

남방한계선에서 수 km에 이르는 민간인 출입통제선까지의 구역 (국방부 관할)

민통선  
- 지역정세에 따라 유동적, 주로 비주거 경작지로 활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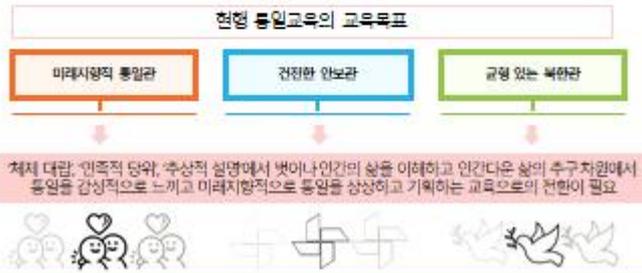
### 생활문화권역으로의 접경지역

강원도 고성인제양구화천철원 / 경기도 연천파주김포  
인천광역시 강화옹진까지  
DMZ를 감싼 10개의 지자체  
=> 한반도 면적의 1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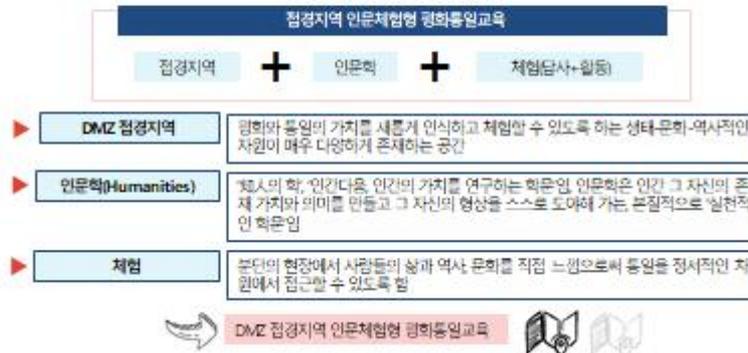


### 3-1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와 접경지역 인문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 접경지역 인문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 3-2 접경지역 인문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이란?





3-3) 접경지역 인문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의 목적과 방향

접경지역 인문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의 목표

분단은 남북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 정서, 문화의 분단임  
통일은 남북의 가치, 정서, 문화적 차이들을 상호 소통을 통한 미래적 기획  
으로 바꾸어가는 것임.



즉, 인문학적 통일교육은 분단형 인간을 통일형 인간으로 바꾸어가는 것임.

- ▶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고  
감성적으로 체험하는 통일교육
- ▶ 평화지역으로 발돋움할 접경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 ▶ 미래 평화통일을 전망하고 실천적으로 준비하는  
자기주도적 통일교육



3-4) 접경지역 인문체험형 평화통일교육의 유형들

놀이형  
평화통일교육

- ① 놀이형 평화통일교육: 영상, 사진, 글짓기, 그림, 연극
- ② 창작형 평화통일교육: 지역사실을 활용한 놀이, 남북민속놀이 통일노래 부르기



테마형  
평화통일교육

- ① '역사문화'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접경지역 근현대사 역사유적 탐방, 삼국시대 중부지역 탐방, 선사시대 유물 탐방, 역사적 인물 탐방, 분단 현장 체험 탐방, 전쟁 관련 현장 탐방
- ② '문화예술'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문화예술 인물 탐방, 작품 감상과 배경 지역 탐방, 지역 문화예술 활동 탐방, 향토 문화 체험형 탐방, 민속 마을 체험형 탐방
- ③ '지질생태'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식호 해안 생태계 탐방, 화산지형 생태계 탐방, 하천유역 생태계 탐방, 산림 생태계 탐방, 희귀 동식물 생태계 탐방



[예시] 지역별 및 테마별 탐방 프로그램

① '역사문화' 체험형 평화통일교육

■ [예시] 근현대사 역사유적 탐방

- 역사 유적 탐방
- 지역 특산물, 문화유산, 1박 2일
- 휴가, '이웃사랑' 캠페인, 휴가에서 지역·문화·자연·생태를 만나다!

시간	활동	비고
09:00~10:00	학교 출발	*남북
10:30~11:30	조선시대 복합유물전시관 탐방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2:15~12: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2:30~12: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2:45~13: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3:00~13: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3:15~13: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3:30~13: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3:45~14: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4:00~14: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4:15~14: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4:30~14: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4:45~15: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5:00~15: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5:15~15: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5:30~15: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5:45~16: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6:00~16: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6:15~16: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6:30~16: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6:45~17: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7:00~17: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7:15~17: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7:30~17: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7:45~18: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8:00~18: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8:15~18: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8:30~18: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8:45~19: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9:00~19: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9:15~19: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19:30~19: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19:45~20: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0:00~20: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0:15~20: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0:30~20: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0:45~21: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1:00~21: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1:15~21: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1:30~21: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1:45~22: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2:00~22: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2:15~22: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2:30~22: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2:45~23: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3:00~23: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3:15~23: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3:30~23: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3:45~24: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4:00~24: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4:15~24: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4:30~24: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4:45~25: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5:00~25: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5:15~25: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5:30~25: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5:45~26: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6:00~26: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6:15~26: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6:30~26: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6:45~27: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7:00~27: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7:15~27: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7:30~27: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7:45~28: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8:00~28: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8:15~28: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8:30~28: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8:45~29: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9:00~29:1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9:15~29:3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29:30~29:45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DMZ 공화국관, 민족의 집, 평화의 집
29:45~30:00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한글, 한글의 역사, 한글의 아름다움



■ [개시] 농부지역 '얼굴시대' 교육 및 탐방

- 대상: 초등 4~6학년, 중 1~2학년
- 지역: 도립청정농촌 탐방
- 주제: '얼굴'의 두 가지 의미와 의미

시간	활동	비고
08:30~10:00	학교 출발	농부 지역교육의 시작 및 특기 소개
10:00~11:00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농부지역 소개-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11:00~12:00	농부지역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12:00~14:00	농부지역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14:00~15:00	농부지역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15:00~16:00	농부지역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16:00~17:00	학교 도착	
17:00~18:00	학교	
18:00~19:00	학교	
19:00~21:00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농부지역 소개, 농부지역의 특색 소개
08:30~09:30	학교 도착	
09:30~10:30	학교	
10:30~11:30	학교	
11:30~12:30	학교	
12:30~13:30	학교	
13:30~14:30	학교	
14:30~15:30	학교	
15:30~16:30	학교	
16:30~17:30	학교	
17:30~18:30	학교	
18:30~19:30	학교	
19:30~20:30	학교	
20:30~21:30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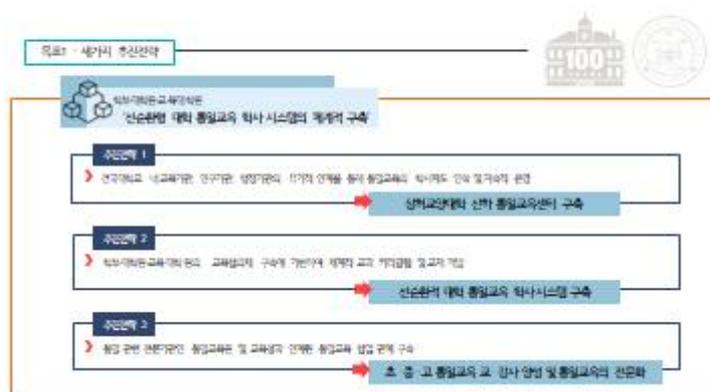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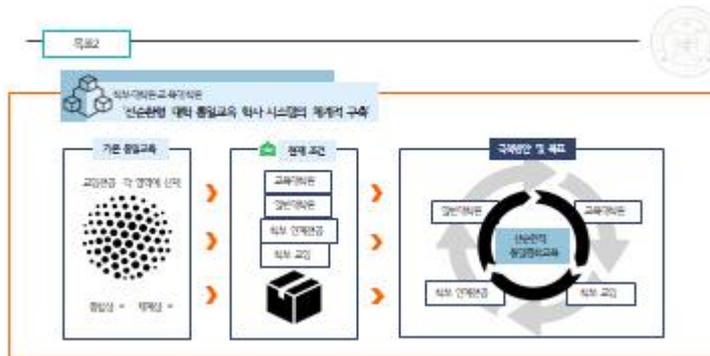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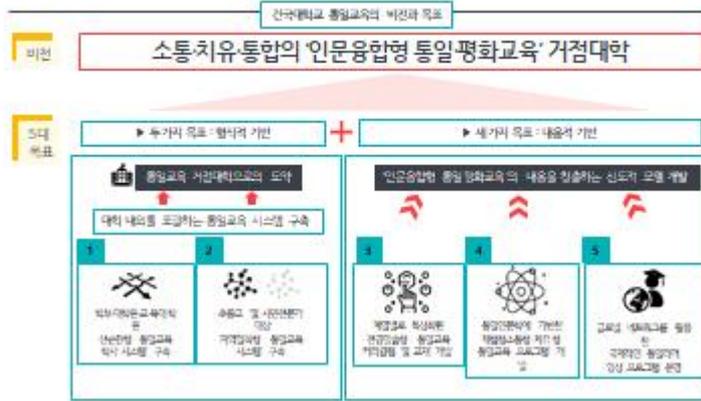


■ [개시] 역사적 인물 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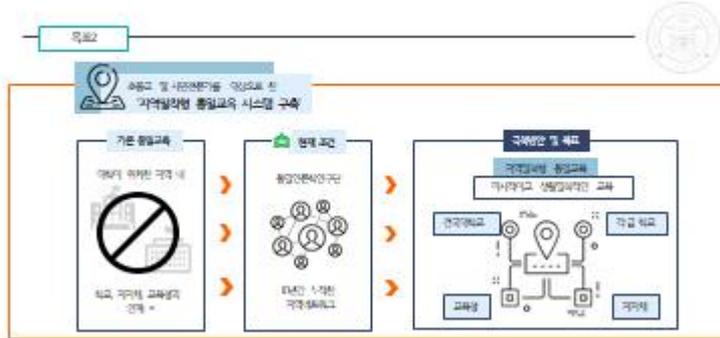
- 대상: 초등학생
- 지역: 김해군 (1박 2일)
- 주제: '농부지역'의 선조, 조상님 선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 '역사-문화'의 역사를 돌아보기

시간	활동	비고
08:30~10:00	학교 출발	학교 출발-학교 출발
10:00~11:00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의 특색 소개
11:00~12:00	김해지역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의 특색 소개
12:00~13:00	김해지역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의 특색 소개
13:00~14:00	김해지역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의 특색 소개
14:00~15:00	김해지역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의 특색 소개
15:00~16:30	김해지역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의 특색 소개
16:30~17:00	학교 도착	
17:00~18:30	학교	
18:30~21:00	[역사-문화 탐방]	역사-문화 탐방, 역사-문화의 특색 소개 역사-문화 탐방, 역사-문화의 특색 소개 역사-문화 탐방, 역사-문화의 특색 소개
08:00~12:00	김해지역	김해지역 소개, 김해지역의 특색 소개
12:00~13:00	학교	
13:00~14:00	학교	
14:00~15:00	학교	





004 인문학적 평화통일교육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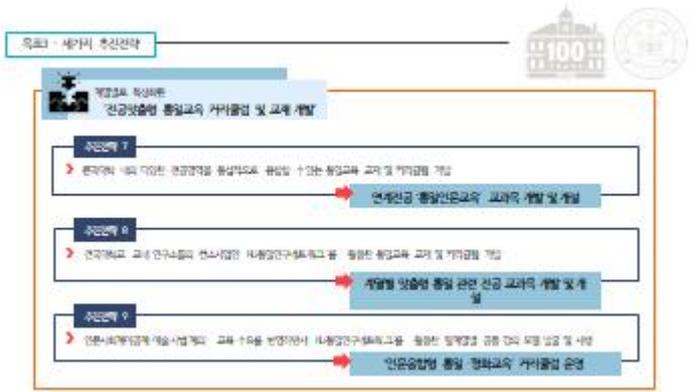


004 인문학적 평화통일교육의 비전



004 인문학적 평화통일교육의 비전





004 인문융합형 평화통일교육의 비전



004 인문융합형 평화통일교육의 비전





**국내 최초**  
"통일"과 "인문학"의 만남  
"한반도 통일"의 새로운 패러다임  
소통·치유·통합의 '통일 인문학'

**새터서 통일 인문학**  
소통·치유·통합

**통일인문학의 탄생**  
국가-체제의 통합이 아니라 '사람의 통일'입니다.

**통일인문학의 비전**  
통일인문학의 비전은 남북과 국·국제 교류를 넘어 '사람의 통일'입니다. 통일은 남북과 국·국제 교류를 넘어 '사람의 통일'입니다. 통일은 남북과 국·국제 교류를 넘어 '사람의 통일'입니다.

**통일인문학의 비전**  
통일인문학의 비전은 남북과 국·국제 교류를 넘어 '사람의 통일'입니다. 통일은 남북과 국·국제 교류를 넘어 '사람의 통일'입니다. 통일은 남북과 국·국제 교류를 넘어 '사람의 통일'입니다.

학부 - 일반대학원 - 국제대학원 - 각 과점별 '통일인문학'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일반대학원**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국제대학원**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일반대학원**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국제대학원**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부별 맞춤형 교육과정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교육과정의 다섯 가지 강점

- 첫째,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 둘,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 셋, 차별화된 교육 인프라**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다.
- 넷, 국내외적인 기관 네트워크**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인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다섯, 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형 통일연구**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형 통일연구를 진행한다. 통일에 대한 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형 통일연구를 진행한다. 통일에 대한 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형 통일연구를 진행한다.

###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다.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프라를 제공한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국내외적인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통일에 대한 국내외적인 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통일인문학은 통일을 위한 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형 통일연구를 진행한다. 통일에 대한 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형 통일연구를 진행한다. 통일에 대한 인문학의 특성을 살린 융합형 통일연구를 진행한다.



감사합니다

# 팬데믹 상황과 인문학 협동조합의 붕괴

위행복(한양대학교 명예교수)

## 1. 인문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곤경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9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인문계열 학과 155개가 사라졌다. 2012년에 962개였던 인문계 학과는 2021년 807개로 16%가량 줄었다. 학생 수가 줄면서 학과도 줄었지만 사회계열이나 자연계열은 8% 정도만 줄었다. 공학계열은 2012년 1333개에서 2021년 1446개로 113개(8.5%) 늘었을 정도다.

젊은 인문학 연구자들은 말 그대로 '생존경쟁'에 내몰렸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2021년 신규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인문학 박사의 56.9%가 대학에 재직하고 있다. 민간기업은 6.5%에 불과하다. 공학은 대학이 30.2%, 민간기업이 32.6%이고 다른 계열도 비교적 분포가 고르는데 반해 유독 인문학도는 대학 의존도가 높다.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다. 실태조사 결과 인문학 박사 취득자 중 37.3%가 연봉 2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 박사 취득자 중 연봉 2000만원 미만은 5.1%에 불과하다. 반면 연봉 5000만원 이상인 인문학 박사 취득자는 18.4%로 공학 박사 취득자(58.6%)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송' 넘어 '문망'...인문학 박사 37%, 연봉 2000만원도 못 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04 05:00

- 인문사회 분야의 시간강사가 전체 시간강사의 3/4을 차지함
- 비전임 교원이 전체 강의의 35% 정도를 담당하는데, 시간강사가 25% 정도를 담당함
- 최근 5년간 일반대 88개교 중 51개교, 전문대 94개교 중 42개교가 정년트랙보다 비정년트랙을 더 많이 임용했다.

## 2. 인문 분야는 협동조합조차 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 한양대학교의 한국미래문화연구소(연구원 김세아)가 2021년 6월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coop 협동조합”에 등재되어 있으며 인문 분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61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운영의 현황을 조사를 시도했다.
- 연락불가 및 미응답 45곳과 설문 응답 거부 4곳을 제외하고 총 12곳의 협동조합이 조사에 응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인문 분야 협동조합은 존폐 자체를 위협받을 만큼 직접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인문학 분야 협동조합 현황

	사회서비스분야	기관 수 (%)	지역	
			수도권	비수도권
1	교육	41 (66.1%)	수도권	23 (56.1%)
			비수도권	18 (43.9%)
2	문화예술	11 (17.7%)	수도권	5 (45.5%)
			비수도권	6 (54.5%)
3	*기타	10 (16.2%)	수도권	3 (37.5%)
			비수도권	5 (62.5%)
총계		62 (100%)		

### 4. 한국미래문화연구소의 설문조사에 응한 협동조합

- 1) 시민인문학교 인문숲 사회적협동조합: 독서토론, 향토사 대중화 사업.
- 2) 의암호협동조합: 생태인문학을 접목한 여행 루트 개설,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자산 매입.
- 3)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을 기초로 한 인문학 교육. 사회 문제를 인문학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문제해결책을 제안
- 4)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 및 풀뿌리 인문학 동아리 운영.
- 5) 북적북적협동조합: 지역주민대상 도서 판매 및 공간 대여.
- 6)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문화재활용 문화인력양성 관광상품개발.
- 7) 희망찾기 사회적협동조합: 인문 관련 사업, 심리상담, 교육사업.
- 8) 협동조합 동네문화공간 겨울나무: 지역주민과 조합원에게 문화콘텐츠를 제공.
- 9)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문화와 역사 해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의 역사 교육 및 교육영상콘텐츠 제작.
- 10) 삼인행 인문협동 조합: 한문의 이해

- 11) 인문학협동조합그리고: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공간 제공. 인문학 세미나.
- 12) 학수고대협동조합: 인문학 체험교육 활동.

## 5.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붕괴

- 인문 분야 협동조합은 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경로이며 학문후속세대의 출로이기도 한데, 국내 인문 분야 협동조합들이 심각한 위협에 봉착해 있다.
- 인문 분야 협동조합은 강의 및 관련 행사를 통한 무형의 인문학 서비스 제공을 존립의 주요 기반으로 삼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주로 대면 강의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협동조합 활동이 **비대면 교육 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매출급감**이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다.
-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서비스 분포는 교육 서비스업이 8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가 2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가 25%로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업종은 교육 서비스에 집중된 형태이다. 시민인문강좌가 주요 사업 아젠다인 것인데, 영리 사업의 대부분이 전통적 방식의 교육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방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전통적 방식의 대면 강의가 거의 불가능해지면서 협동조합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된것이다.**

### ○ 협동조합들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1. 시민인문학교 인문숲 사회적협동조합: 21년 설립
2. 의암호협동조합: 21년 설립
3.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21년 설립
4.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비영리 단체로, 가시적 수익 없음
5. **복적복적협동조합: 코로나 이전 3천만원, 코로나 이후 5천만 원**
  - \* 신규매출처 발생으로 전체매출은 증가하였으나, 기존거래의 매출은 감소.
6.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코로나 이전 9천만원, 코로나 이후 7천만원
7. **희망찾기 사회적협동조합: 코로나 이전 삼천만원, 코로나 이후 1억 삼천만 원**
  - \* 코로나 이후 심리상담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여 해당 분야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함. 또한 심리상담과 치료에 관련한 정부사업을 수주하여 매출에 기여함.
8. 협동조합 동네문화공간 겨울나무: 약 50만원 차이로, 큰 변화 없음.
9.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코로나 이전 9천만원, 코로나 이후 4천만 원
10. 삼인행 인문협동 조합: 수익 미발생
11. 인문학협동조합그리고: 영리사업 비중이 적어 수익 규모가 작음. 지역 인문학 세

미나와 학습모임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코로나 이전 약 4~5개의 모임 지속되었으나 코로나 이후 1개의 정기 모임만 지속.

12. 학수고대협동조합: 휴업

- 사업수익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매출액 증가 1곳, 신규 매출처 발생으로 전체 매출은 증가했으나 기존 거래가 중지된 경우 1곳)가 없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시적인 감소세를 겪었다. 근로자 수의 경우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58.3%) 큰 폭으로 줄었다(33.3%).

- 코로나 19가 협동조합 운영에 미친 영향 중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사업 수익 저하(33.3%)였으며, 교육 서비스가 주요 사업인 조합이 대부분인 만큼 대면 강의가 불가능해지면서 근로 시간이 감소(25%)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이외에 조합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있어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조합원 모임의 제한, 필요 공간의 대여 불가,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사업의 사실상 중단 등이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 협동조합들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도 공적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다.

1. 시민인문학교 인문숲 사회적협동조합: 없었음
2. 의암호협동조합: 없었음
3.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없었음
4. 광주시민인문학협동조합: 없었음
5. 북적북적협동조합: 천안사회적경제연대 자조금
6. 우리역사문화협동조합: 매출상승으로 지원 없었음
7. 희망찾기 사회적협동조합: 없었음
8. 협동조합 동네문화공간 겨울나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9. 용산역사문화사회적협동조합: 없었음
10. 삼인행 인문협동 조합: 없었음
11. 인문학협동조합그리고: 없었음
12. 학수고대협동조합: 정부지원금

○ 인문 분야 대표적 협동조합인 '인문학협동조합' 현황

-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대표 단체로 선정한 '인문학협동조합'(서울시 서초구, 이사장 천정환)은 2013년에 출범한 인문 분야의 협동조합으로서, 국내 최초의 인문학 연구자 중심 협동조합이다.
- 인문학협동조합은 조합 출범 이래 다양한 강의('테크노 걸쳐 기계비평' '게임인문학' '미디어비평스쿨' '웹툰 문예학' 등등) 와 저술활동(진격의 독학자들, 팽목항에서 불어오는 바람 등등), 후속 인문 공동체의 형성(장르 비평가 집단 텍스트릿 등)을

수행하며 다층적 성과를 거둬 왔다.

- 2021년 현재 ‘인문학협동조합’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사업수익은 28,105,994원(2019)에서 1,599,534(2020)원으로 94%가 급감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 결과 사무국 임원진 구성을 대폭 축소하고 공식적인 사업 대부분이 정지된 상태에 처해 있다.
- 한때 1백여 명에 준하는 조합원 수를 보유했던 인문학협동조합은, 실질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생산자 조합원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현재 약 70명 선을 유지 중이다.

## 6. 협동조합의 요구 사항

- 협동조합 재건과 활성화를 위해 요청되는 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한 주관식 서술 답변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 비영리 단체인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
  - 앱 개발 등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
  - 강의를 위한 인력풀, 관련자료 배부, 활동 공간 확보
  - 지역 인문학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제도 확대
  - 비슷한 분야의 협동조합 간 정보 교환의 자리 마련
  - 연대 허브 또는 컨트롤 타워 수립
  - 공모사업 서류의 간소화 및 사업후 처리 서류의 간소화
- 코로나 19로 야기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협동조합들이 갈구하고 있다.
  - 경제적 지원으로는 신규 보조금에 대한 요청이 두드러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규모의 급격한 축소를 겪으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정책의 신설과 신규 보조금을 통한 지원 대책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 운영의 지속을 위한 정기성 및 지속성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
  - 비대면 환경에 따른 적응 능력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관련 앱 개발을 위한 기술 교육과 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강의 서비스와 저술 활동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삼는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이 생산하는 콘텐츠는 일반적인 제조업의 그것과 달리 무형의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공판로의 형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인문 분야 협동조합과 콘텐츠 수요자 간의 교류가 제공되는 공개적 ‘장’의 형성이 요청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쌍방향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 인문 분야 콘텐츠에 특화된 홍보 컨설팅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쌍방향 네트워크의 구축과 운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삼는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대표적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온라인 강좌 납품 의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사업 수립이 불가능한 문제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관련 지자체 및 사업체에서는 완성된 강의 콘텐츠의 납품을 요청하지만, 개별 조합들은 강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강의 촬영이 가능한 장소, 카메라와 마이크 등의 장비, 촬영 및 편집에 따르는 전문 인력 등을 공적 방식으로 지원받아야 하는 것이 협동조합이 처한 상황이다.
- 세무, 회계에 대한 지원 고려의 요청이 있었다. 연간 약 200만 원의 세무대행 지출액이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수익이 크게 저하된 현재로서는 해당 금액이 조합의 운영에 타격을 입힐 만큼의 중대한 규모인 것이 사실이다. 한시적 일지라도 세무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거나 또는 그 비용에 대한 지원책이 상정된다면 현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는 2020년 7월, 코로나19 피해 협동조합 지원을 위해 회계기장 대리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협동조합 당 50만원씩, 총 25개 협동조합에 1,250만원을 지원했는데, 긴급지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원 서류를 간소화하고 행정 처리에 있어서도 신속성을 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이러한 지원 사업의 수혜 단체가 25개 협동조합에 국한되었다는 점, 협동조합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이와 같은 지원책에 대한 정보공유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은 향후 지원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인문 분야 협동조합 간의 정보 공유와 인적 네트워크 공유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단순히 지자체 단위의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서, 사업 분야와 관심 분야가 일치하는 인접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인문 분야 협동조합의 전체 회의를 비롯하여, 연계 강좌 진행 및 상호 인력 공유를 통해 연대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한다면, 향후 조합의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7. 제안 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분야의 협동조합 구성 및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
- 2013년 42개였던 협동조합이 2017에 이미 264개로 증가했으며, 조합원은 2013년 444명에서 2017년 3,649명으로 증가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과학기술분야에 비해 인문사회분야는 전무한 실정이며, 인문 분야의 협동조합은 과학기술 분야에 비해 발전이 저조한 상태에 있다. 협동조합은 시민교육의 거점일 뿐만 아니라 학술생태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최근 코로나19의 만연으로 인한 급격한 생활상의 변화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일정 수준의 성장기반이 구축될 때까지는 인문사회 분야 협동조합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제도화가 절실하다.

새 정부 인문 기초학술 정책에 대한 제안

## 인문 Metaverse Initiative 2030

한국인문학총연합회

2022년 4월 18일

## 목 차

1. Metaverse 개념

2. Steve Jobs의 교훈

3. 우크라이나의 비극

4. AI, IoT, Big Data?

5. 인문학술정책의 실패

6. 인문 Metaverse

7. 새 정부에 바라는 인문Metaverse 2030 학술정책!

# 1. METAVERSE 개념

- ❖ 최근 회자되는 Metaverse! → 과연 과학기술용어인가?
  -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
  - 포스트사이버펄크 소설가인 Neal Town Stephenson이 원시 수메르 신화와 하이테크를 융합한 내용으로 1992년 출간한 소설 *Snow Crash*에서 최초 사용 → **인문학에서 창안된 용어임!!!**
  - 제 4차 산업혁명시대, 3차원에서의 실제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된 가상세계가 융합된 공간

- ❖ 일상화된 Cyberspace! → 과연 과학기술 용어인가?
  -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는 William Ford Gibson이 1982년에 쓴 사이버펄크 과학소설 *Neuromancer* 에서 최초로 등장. → **인문학에서 창안된 용어임!!!**
  - 인공두뇌학(cybernetics)을 뜻하는 Cyber와 공간을 뜻하는 Space의 합성어로서 현실이 아니라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두 뇌속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가상의 공간을 의미
- ❖ Metaverse, Cyberspace 개념들은 인문정신과 융합된 과학기술영역이자 창의적 인문학의 융합 필요성 현시

## 2. STEVE JOBS의 교훈

### ❖ Steve Jobs의 교훈

- 21세기 가장 참신하고 도전적인 기업가의 상징 스티브잡스가 죽기 전, "기술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애플사의 DNA다. 우리의 심장 박동에는 인문정신(liberal arts & the humanities)과 결합된 기술이 있다"고 천명한 이유를 새겨야 함.
- 인문정신과 사회적 가치의 융합으로서의 문화는
  -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창이자 의미체계이며,
  - 경험의 성격을 이해하고, 행위의 규범을 설정하며,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틀
- 그래서 과학이 만약,
  - 공정의 기준에 편여하고,
  - 시와 같은 새로운 실재에 제약적 기능을 고만할 때,
  - 반드시 인문정신과 사회적 가치와 함께 가야 함.

❖ 르네상스와 서구 17~8세기 근대과학기술 문명의 탄생은 인문정신의 부활로 시작

❖ "The School of Athens"  
by Raffaello

위키백과  
Date: 1511  
Medium: fresco



### 3. 우크라이나 비극과 인문정신

#### ❖ 우크라이나 전쟁: 야만과 계몽, 인문정신의 목마름



헤르손과 부지에서 진행되는 러시아의 Genocide. 러시아는 점령지에서 언론역자와 교사를 골라서 학살

- ICT와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해 디지털 문명이 발전하는 뉴 월드니엄에도 야만적 전쟁은 계속됨
- 인문정신은 갈등과 대립, 탐욕과 억탈, 전쟁과 정복으로 이어지던 연류시에 계몽과 공영의 계기를 만든 원동력
- 공자는 春秋戰國 시대 전쟁터였던 천하를 주유하며 '仁' 을 설파
- 소크라테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참상 속에서 '인문정신' 을 정립

#### ❖ 우리 사회의 대립 및 갈등과 인문정신의 요청

-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진영 대립
-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패로 인한 지역 갈등
- 좋은 일자리 창출의 실패와 3포세대 청년
- 사회적 소통 부재로 인한 세대간 갈등과 성 대립
- 포퓰리즘에 의한 정치적 농단(지역감정)
- 맞춤형 교육정책의 실패와 학교 차별화
- 공공기관의 기강해이와 반사회적 행태
- 투기적 자본시장에 의한 시장질서 교란

## 4. AI, IOT, BIG DATA?

### ❖ 과학기술 시대의 방어법!

- AI와 IoT, Big Data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는 세계를 스마트하게 만들지만, 다른 한편 3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청년과 코인과 부동산을 놓친 벼락거지를 양산
- 2021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전남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풍력단지 48조 투자 협약식'을 찾아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라며 소회를 밝혔지만, 행사장 뒤에서 돌린 거대한 풍력발전기는 전기 모터로 돌림.

### ❖ 과학과 디지털 기술문명은 21세기 데미우르고스를 자임

- 우리의 일상은 모바일 환경 속에서 점점 더 스마트해지고, 유전자가 위가 '생명'을 '공학'의 주제로 전환시키지만, 정작 '인간'은 소외를 넘어 '상실'되고 있음.
- 과학기술의 현대학문들이 철학에서 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던 18세기 독일철학자 칸트의 용어를 빌면 '과학없는 인본은 공허하지만, 인본없는 과학은 맹목적이다.'
- 인문정신과 사회적 가치의 영역은 마치 공기와 같이 공동체적 삶의 기반을 이루는 사용가치이지만,, 계량화된 교환가치가 지배하는 세태로 유배된 선비 꼴로 전락.

## 5. 인문학술정책의 실패

### ❖ 인문학술정책의 문제점

- 대학의 연구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
- 대학은 혁신적 연구의 씨앗이 되는 기초연구의 거점
- 따라서 순수기초학문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연구 지원이 계속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역행.
- 헌법상 보장된 학문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시장 논리에 의해 연구주제를 제약받지 않고 연구자 주도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
- **문정부 5년간 인문사회학술지원금은 3000억으로 오히려 삭감**

### ❖ 학문의 균형발전과 인문사회 분야 학술생태계 복원 노력

- 1) 1996. 11: 「인문학 제주 선언」, 국공립대인문대학장협의회
- 2) 2001. 11: 「2001 인문학 선언」, 국공립대인문대학협의회
- 3) 2006. 9: 「인문학 선언문」, 고려대 문과대 교수 전원
- 4) 2006. 9: 「오늘의 인문학을 위한 우리의 제언」,  
전국인문대학장단
- 5) 2012. 10: 「인문학 선언문」, 한국인문학총연합회
- 6) 2020. 8: 「인문사회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청원서」
- 7) 2021. 3: 인문사회선언문,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 6. 인문 METAVERSE INITIATIVE 개념

- ❖ Metaverse = Meta + verse
  - ✓ Aristoteles 철학 'Metaphysics' 에서 'Meta'와
  - ✓ Universe 개념에서 'verse'를 따와 만든 창의적 연문개념
  - ✓ Aristoteles 에서 'Meta'란 '뒤이어', '넘어서(초월)' 등의 뜻
  - ✓ 어린 의대에서 보면 'Metaverse'는 아날로그적인 자연과 현실세계를 넘어 만들어지는 '디지털문명'과 '네트워크 문화'에, 인류의 감성과 창의성을 융합하는 연문정신의 새로운 지평의 출현을 의미.
- ❖ Meta가 '자연(물질)을 넘어서'라는 개념으로 사용될 때, 'Metaverse'는 '과학기술을 넘어서' 인간과 생명의 배전을 모색하는 연문정신으로 영역 전어

- ❖ "인문 Metaverse Initiative 2030" 의 함축
  -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되기 위해 꼭 필요한 '연문정신'과 '과학기술'의 영역전어적인 융합을 위한 2030년까지의 배전 설정
  -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문정신에 과학기술의 창의적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수 있게, 어공역문분야에서의 기초 연문교육강화
  - 연문사회과학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 초중등 및 고등교육과정에서 아날로그적인 자연과 현실세계를 넘어 만들어지는 '디지털문명'과 '네트워크 문화'에, 인류의 감성과 창의성을 융합하는 '디지털연문학' 교육과정 개발
- ❖ "인문 Metaverse Initiative 2030" 이 구현되기 위한 국가차원의 정책 지원

# 7. 새 정부에 바라는 인문 METAVERSE 2030 정책제안

중점영역	비전과 목표	10대 기본 추진 전략	12(15)대 주요 실행 과제
기초 학문 진흥 과제	법과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칭) 기초학문진흥특별법 제정 및 국가급 지문회의 설치</li> <li>- (가칭) 기초학술 정책연구원 또는 학술진흥청 신설</li> <li>- 고등교육학술주무부저인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 강화</li> </ul>	
	기초학문 진흥목표 재정투자 4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문사회학술지원 예산 1조원이상 시대</li> <li>- 고등교육재정증가분 기초학문진흥투자</li> <li>- 대학연구교육다양성 학문후속세대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거버넌스조 혁명의 균형발전과 조화</li> <li>-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균형과 융합지원</li> <li>- 전국교양기초교육원 위상강화와 재정지원</li> <li>- 인문기초학문 국가교수제 및 전담대 지원</li> <li>- 통일교육기본계획의 개선 및 확대 개편</li> <li>- 지역거점종합대학교 인문학과 유지지원</li> <li>- 인문분야 청년준용 장려 및 육성 지원</li> </ul>
	기초학문 친화적 연구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친화적 학문연구 지원 및 관리체제개편</li> <li>- 기초학문다양성진흥 연구 거버넌스 구축</li> <li>- 대학 규제 및 평가 제도개선</li> <li>- 인문Metaverse융합 및 디지털 인문교육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에서 인성명령의 실천 위한 인문소양교육 및 인문응용목표 교육</li> <li>- 대학기본역량전담에서 핵심역량중심 교양교육평가의 문제점 개선</li> <li>- 인문기초교양 강의선임교수 육성 지원</li> <li>- 한민족의 역사적 트라우마를 자유하는 통일인문학 정립 및 DMZ평화항해교육</li> <li>- 현대적 선명명 대차 인문자유프로그램</li> </ul>